

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2018 봄 통권 16호

- 발행처: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남상욱
- 편집장: 문선주
- 편집위원: 배용하, 염혜정, 한준호
- 발행일: 2018. 6. 1
- 창간일: 2012. 7. 12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현로 1176번길 8-54
- 전화: 041-742-1424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하세요.

편집인의 글

관계에서 이해받다

돈으로 치장하고 학벌로 빛을 내고 명예로 그 길을 닦는다 하여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관계는 수직적인 일방통행으로 연결된 상태일 때나,

진실을 외면한 채 피상적인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상태일 때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진실 속에서,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라는 동질감 안에서,

든든하게 수평으로 연결된 밧줄을 연상시켜준다.

그 든든한 관계의 밧줄이 잘 형성된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문 선주 자매
KAC 총무

요즘 우리나라는 냉각된 남과 북의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며 평양을 지나 중국, 러시아, 유럽에 이르는 직통 연결망을 기대하는 흥분된 상태이다. 나는 감히 이 기쁨과 희망의 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에 쏟은 정성에 기인한다고 확신한다. 평창 올림픽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임을 상기할 수 있었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지금의 호전된 관계를 위한 견인차가 되었다.

4.27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감격은 바로 그 관계 회복에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오해가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많이 완화되었음을 피부적으로 느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갑추어 있었던 북한의 지도자를 종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그간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되어 신중하지 못하고, 트럼프와도 트위터로 욕설을 주고받는 다혈질이며 즉흥적으로 사람 생명을 다루는 폭악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 만난 그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필요를 느끼고, 또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우리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그 결과, 별 위화감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를 친근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평양냉면이 갑자기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 이전의 경색된 관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관계 회복이 가져다 준 커다란 변화이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군사력을 경쟁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했다면 정상회담은 또 다른 상처만을 남긴 채, 불안감만 고조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TV 생중계를 통해서 서로 손을 맞잡은 정상,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용기의 대화, 서로 안아주고 귓속말을 나누며 마음 편히 웃는 여러 남북 인사들의 유쾌한 만찬 자리 를 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손이 떨리고 눈물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계가 좋아졌다는 직관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번 저널에서는 또 다른 깨어진 관계를 다룬다. 위계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의 성폭력문제인 [미투 운동](#)이다. 이 미투운동의 출발선은 남녀 간의 관계를 대등한 상호보완 관계로 보지 않고, 위계질서의 상하수직관계로 보아 온 남성의 해묵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터뜨린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을 향한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 수 천 년에 걸친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수치심과 상처를 입

은 여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각의 변곡점이 도래했음을 알렸다.

이 변곡점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바로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다. 여성들은 근력적인 면에서 약자로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억울한 ‘을’로서 수 천 년 간 억압받아 왔다. 그러나 21세기 탈현대화 시대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경직된 구조에서는 여성이나 남성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관계의 황금률을 적용해야만 상생할 수 있는 시대이다. 여성이라는 약자나 을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나의 아내이며, 나의 누이이며, 나의 딸일 수 있는 나와 다르지 않은 동격인 존재로 대우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남성들은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누렸던 힘과 권력으로 인한 교만과 무례함의 명예를 내려놓고 여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분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더 나은 파트너로서 분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계 형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완벽한 관계를 도모하여 강자와 약자, 갑과 을로 구분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미투 운동의 주역으로 with you를 외쳐야 한다.**

저널에서는 평화신학의 대부였던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아나뱁티스트 진영 안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그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한국 아나뱁티스트들의 책임성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하여 존 하워드 요더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과연 그의 너덜너덜해진 평화신학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여성신학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에 대한 교회 내 여성과 남성의 반응을 실으면서 남녀 공히 성폭력 문제의 도전 앞에 힘이 있던 가해자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피해자 내지는 생존자로 살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위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실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모임을 ‘시스터 케어 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아나뱁티스트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도 널지시 알려주고 싶다.

올해 2018년은 KAF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저널을 년 2회로만 발간될 것에 대해 미리 양지의 말씀을 드리며, 저널에 꾸준한 관심과 투고를 통해 더욱 알찬 저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독자들이 더 많이 질 것을 꿈꾼다.

지난호 저널은 아래 두 곳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ww.wkaf.net / www.anabaptist.kr

MeToo

“당신이 당한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예수마음 교회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성경도 이야기로 꽉 차있듯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인생에서는 개념보다는 스토리가 훨씬 전달력과 호소력이 있다. 특히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 자체가 생명이다.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합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안동규형제
예수마음교회

사람들은 질문 속에서 살아간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그것도 3번](#) 누가 더 큰 자인가? 질문은 상대방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여 상대방을 주체가 되게 한다. 예수는 질문과 이야기의 왕이다. 나의 질문과 너의 질문이 합쳐서 우리의 질문이 되고 사상과 신학이 된다. 좋은 이야기와 바른 질문이 옳고 살아있는 사상과 신학을 만든다.

예수마음교회는 5년의 이야기와 5년의 질문과 함께 자라고 있다. 1996년 1월 7일, 3년의 성경공부 끝에 태동한 모교회인 예수촌교회에서 17년 만에 분가된 교회 [2013년 3월 18일](#)의 정식명칭은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등록된이름이다. 우리교회는 매년 감사절마다 전 교인이 감사이야기를 써서 읽는데 이번에는 교회 5주년 예배를 ‘나에게 예수마음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서로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

첫 질문: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삶속에서 나에게 다음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 왔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상황에 따라서 벼전이 바뀌는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도무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누군인가?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다. 솔직히 말하면 안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은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예수촌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93년부터 따지면 거의 25년 반세기 첫 질문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거듭 물어본다. 교회는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 때문에 다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 질문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 교회 초창기때는 내가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다 *doing*고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은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being*, *존재적 실체*이며 되어 가는 *becoming* 것이라는 것을 살면서 *doing* 깨닫게 되었다. 교회가 함 *doing*에서 시작하지만, 존재 *being*로 되어감 *becoming*으로 성숙하게 됨을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마음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은 것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교회다. 예수마음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following* 마음들의 사람들이다.

메노나이트는 과연 무엇인가?

메노나이트는 과연 무엇인가? 재새례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학책을 통해서 또는 교회사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과 교회를 하면서 답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교회라는 우리들의 경험과 이야기속에서 이 답을 얻어야 살아있는 정답이다. 이야기와 경험 속에서 체화되지 않는 답은 그저 시험지의 답일 뿐 생명력과 설득력이 없다. 피와 고통과 박해속에서 자란 재새례 신앙의 본질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이 한반도 역사 *history*에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교회가 될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들의 질

문이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3B로 요약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belief, belonging, behavior를 통해서 사랑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마음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doing, being, becoming의 과정을 경험했다면 재새례신앙을 통해서 belief, belonging, behavior을 배워 나갈 것이다.

예수마음교회 5주년때 나누었던 나의 교회이야기를 정리하면,

1.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왔다.
2. 내가 교회에서 5년간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설교하였다.
3. 마치 내가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나를 읽듯이
4. 내가 5년 간 예수마음교회를 지키고 **keep**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해 가고 있다.
5.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감한다.
6.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만들고 있다.
7. 내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예수맘**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
8.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지만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나의 삶이 중심이다**'라는 고백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 다음 질문은 과연 무엇인가? 다음 질문과 그 답을 이야기와 삶속에서 깨달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것을 약속드리고 질문을 통해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께서 이 글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며 ….

예수촌 교회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봄 까지)

예수촌 교회가 20여 년간 사용해오던 후평동 건물을 뒤로하고 근화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 이사에 대한 소식을 두 편의 에세이에 담았다.

이사 과정에서 의견 모으기

“정말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자매가 교회 이전과정에서의 느낌을 한마디로 말했다. 교회 이전을 다 미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회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지체들은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힘들었었지. 나도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결국 하나로 모아져서 교회를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처음 교회 이전에 대해 생각할 때 별것 아닐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그리고 여러 번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사안 같아도 다양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무척 힘이 들었다. 처음 이사의견이 나온 것은 2016년 10월 공동체 회의. 그 당시 예배실이 있는 후평동 공단 근처 3~4층 건물을 수시로 비가 새곤 했다. 수리를 해도 몇 년 못가 또 비가 새고 4층뿐 아니라, 3층까지도 바닥에 물이 떨어지곤 했다. 한번은 배전반으로 물이 쏟아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여 지체들이 크게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방수 공사는 건물주에게 요청하면 되지만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3~4 층으로 올라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체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안거나 업고 오는 새내

기 엄마들도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이시를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여러 명의 지체들이 자원하여 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먼저 이사 관련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몇 달 동안 여러 안을 만들었는데 그중 첫째 안이 새로이 신축하는 것, 하지만 이 안은 2017년 4월 공동체 회의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며 예수촌교회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추진위원회는 차선책으로 임대를 할 만한 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임대 시장의 차가운 현실과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정말 의외로 교회로 임대하려는 건물주가 거의 없고 둘째는 좀 좋은 곳이라 하면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쌌다. “교회가 혼오시설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동안 넓은 평수의 건물을 싸게 임대하고 있었군요.” 추진위 지체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당혹해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냥 있자 그렇게 큰 월세 내면서 꼭 가야 하느냐”는 의견, 현재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자라는 의견 등이 대두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의견의 흥수가 일어 교회 이전 건은 그 흥수 속에 표류하는 듯했다. 다시 긴 회의. 그 결과 교회안의 약자를 우선하자는 원칙에 동의하여 교회 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전 기준안을 결정했다. 이 기준안에는 약 60평이 건물 넓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일층이어야 하는 등 건물 조건과 의사 결정 원칙이 정해졌다. 그 이후에 예수촌 교회 이전 밴드가 만들어 지고 여러 가지 건물 정보를 이전 추진 위원 이외에도 예수촌 지체들이 올리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교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건물을 보러 다녔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나서 모두 다 모여 공동체 회의 그리고 또 회의 ….

돌아 보면 2017년도에는 교회 이전 때문에 공동체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기도 하고 주중에도 비상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회의 중에 표출된 다양한 의견은 하나로 잘 모아지지 못했고 거듭되는 회의로 인해 모두들 조금씩 지쳐갔다. “아 그냥 누가 깃발 들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생겨나고 첨예한 의견 대립과 이로 인해 상처 받는 지체들도

나타났다. 공동체 의견 모두를 듣고 전원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자체 모두들 깨닫기 시작했다.

“조그만 교회가 월세로 이전하다가 풍지박산 나겠네.” 걱정하는 식구, “많은 교회가 이전한다고 하면 논의 과정 중 교회 교인 3분의 1이 떠난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전한 후에도 또 3분의 일 정도가 떠나고 결국 1/3만 남는답니다.”라고 교회 이전 과정을 겪은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체, 이것 모두 의견 모으는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어렵다고 누군가에게 맡겨버릴 수 없으며 우리가 가졌던 공동체적 결정의 원칙을 허물 수는 없는 문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2017년 11월에 드디어 현 근화동 예배처소를 찾게 되었고 12월에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전원이 합의하였다. 다음 일은 실내 내부 장식. 교회 이전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였지만 이 건도 만만치 않은 문제. 우선은 제2기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TF 팀를 꾸리고 이 들로 하여금 교회 내부 수리와 리모델링에 대한 안을 맡겼다. 여기서 안을 만들고 공동체 회의을 거쳐 그 안에 대하여 공동체적으로 결정한 다음 일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여러 번의 회의 그리고 밴드를 통한 정보 교류와 의견 수렴 등의 방



법으로 하나둘씩 교회 내부 리모델링 안이 만들어졌다. 물론 TF 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안을 교회 전체에서 결정하는 데에도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료되고 드디어 2018년 2월 9일 이사를 하면서 예수촌 교회의 후평동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근화동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2월 25일 예수마음 교회 식구, 아바 공동체 식구들까지 초청해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전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부를 때 감사와 감격이 가슴으로 가득 차 목이 메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부르는 찬양은 감사의 기도가 되어 허름한 동네의 작은 교회 건물 밖으로 은은하게 울려 퍼져 나갔다.

이웃과 담벼락을 나누는 교회

예수촌의 20년 후평동 시대를 마감하고 근화동 시대가 열렸다. 공동체의 꿈을 갖고 작년 5월에 이곳으로 왔는데 예수촌 교회는 새 시대 변혁을 앞두고 있었다. 후평동 시대의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만큼이나 놀랍고 신기한 신화 같았다. 20년 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모인 이들이 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유치원을 빌려 주일마다 모이고, 선교단체 회관을 거쳐 후평동에 자리 잡은 지 어언 20년이었다. 3층과 4층을 사용하던 교회는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중후하고 엔틱한 느낌이 강하였다. 하지만 높은 계단 때문에 다리 아프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섬’처럼 건물 내에 있는 교회가 ‘육지’에 닿아 좀 더 이웃과 함께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다.

사실 예수촌 교회 이전에 관한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공동체회의를 통해 이전추진회가 이미 결성된 바 있었고, 회의 때마다 지체들과 이전에 관한 논의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전원합

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회의 결정방식으로 외부에서 보면 다소 지지부진 한 면을 면치 못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내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며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진통도 있었고 또 교인들이 오기에 용이하며 꽤 큰 규모의 공간으로의 이전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런 우여곡절,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 춘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근화동’으로 오게 되었다. 근화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 주로 담이 낮은 주택가이며 1인 가구와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다.

구비구비 골목 따라 들어가면 보이는 조그만 교회, 이웃의 담벼락을 가까이 둔 마을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촌 교회의 새 시대가 열렸다. 더 웅장하고 볼품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전이 아니기에 더 낮아지고 더 구체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로의 이전이기에 조립식 건물의 하얗고 턱이 낮은 교회와 작은 텃밭들, 이웃과 담벼락을 나눈 예수촌 교회를 볼 때 마음에 큰 감격이 일었다. 유례없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게 허리 치고 나와서 보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고, 이런저런 이웃의 잔소리를 정겹게 들어야 할 것 같다.

이전 후, 축하예배에서 화천아바샬롬공동체의 이윤식 목사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새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로 더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곳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밥’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살고, ‘밥값’을 하며 산다. 여러 생명들의 노고가 들어 있는 ‘밥 한 그릇’에는 알 수 없는 사랑과 배려와 나눔이 깃들어 있다. ‘괭이부리말’이라고 알려진 ‘만석동’에 빈민구호활동가들이 찾아가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었다. 그 공부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넣어 쓱쓱 비벼 만든 비빔밥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었다. 밤늦도록 일터에

서 놀아오지 않은 부모를 둔 가난한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였다. 그 밥을 한입 넣었을 때 밀려오는 뱃속 포만감과 혼자 먹는 밥이 아니니 서로를 향해 지어 보일 수 있는 미소의 여유가 가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 어려운 이웃과 잘남도 부함도 없는 양푼이 비빔밥을 비벼서 나눠 먹는 그런 가난한 공동체를 꿈꿔본다. 수직적으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과 담벼락을 나누며 공평하고 넉넉한 가난을 함께 살아가는 예수촌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러했다. 귀족도 노예도 없는 수평한 관계 속에서 밥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다. 그런 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닮은 예수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껏 다짐한다.

MeToo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 때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 등 영미권에선 명예훼손을 민사로 다룰 수는 있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만을 벌한다.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평화누림교회

주변환경개선

정화조의 용량으로 인해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정화조를 하나더 묻었습니다. 좌충우돌 함께 일하는 즐거움은 공동체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9월 총회를 향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힘닿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MWC 회의로 캐냐 다녀 옴



배용하형제가 캐냐의 MWC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김성우형제님을 대신 해서 2주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방식과 절차와 느슨하지만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메노나이트교회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경중형제도 만나고 그 많은 책의 저자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도 좋았습니다. 마지막날 공인현선교사와의 교제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평화기행참여

김영범 배중열 김도현 형제가 '2018 메노나이트

평화기행'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진해에서는 배용하 형제도 참여하여 평화행진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형제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와 진해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

논산YMCA 섬김

논산의 YMCA를 세우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체로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인도 청소년 아웃리치 섬김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청소년 2명(네하, 수바스)이 2주간 머물며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을 섬기는 한상영선교사님과 후원자들의 섬김이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가족교회

2018 메노나이트 평화기행

제주는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 저항과 수난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섬입니다.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4월 제주에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2018 한국 메노나이트 제주진해 평화기행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모인 11명의 형제와 자매가 평화를 보고 평화를 듣고 평화를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날은 제주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북촌 너븐송이 기념관과 서우봉 동굴,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영화 ‘지슬’을 감상하였습니다. 둘째날에는 송영섭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섯알오름 학살터 주변과 무등이 왓 잊어버린 마을, 영화 ‘지슬’에 나온 ‘큰넓궤’ 동굴에 들어가 작게나마 제주의 아픔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행을 통해 제주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평화를 말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5개 공동체교회 평화예배

4월 8일에는 '평화가 올때까지'라는 주제로 제주의 5개 작은 공동체 교회가 모여 제주 4.3 평화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에는 마침 구미에서 온 이방인 공동체가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영섭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23절 말씀으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4.3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예배후에는 4.3 평화기념관을 돌아보며 더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 참석 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제주를 생각하며 제주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하는지 뜨거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리: 김성우형제〉

정성한 목사님 소식

농장 이름을 바꾸며 …

그래 여름, 첫 복숭아를 수확하여 정신없이 처분 (?)하고 난 후, 어느 벗님이, 착한 사람이 농사지으니 착한 복숭아 농장이라고 하라며 지어준 격려성 이름으로 여태 왔습니다.



정 성 한 형제
주님은 나의 목자 교회

새로운 이름을 놓고 골똘 궁리하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이름을 빌려, ‘톨스토이 농장’이라 짓습니다. 그의 ‘하늘과 사람과 땅과 행복한 밤상’에 대한 사상이 우리가 농장을 일구는 뜻과 맞고 앞으로도 좋은 영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벗님들에게 새 이름을 내놓으며 더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진은 지난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농장에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미생물로부터 각종 벌레들, 터줏대감 고라니, 하릴없이 오가는 새들, 부지런히 땅을 뒤져 먹이를 찾는 닭과 거위, 벌거벗은 듯 의연히 서있는 나무들까지….



이 생명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각기 저 나름의 방식들이 있지요. 오늘 작은 나뭇가지 끝, 꽃망울에 매달려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리는 마른 이파리를 발견했습니다. ㅎㅎ



저 이파리 속엔 무언가 비밀이 숨겨 있지요. 어느 별레의 알들이 추위를 견뎌 내고 있답니다. 익충 알일까요, 해충 알일까요?

해를 품은 닭 알

지난주에 35년 만의 특별한 개기월식, 슈퍼문과 블루문과 레드문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지요. 전 그날 저녁, 그냥 따뜻한 방바닥 이불 속에 발집어 넣고 있었는데, 벗님들은요?

다음날 초저녁, 마치 에드벌룬처럼 동쪽 하늘에 매달린 그 달을 보고 조금 아쉽기는 했지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해가 막 서산을 기웃거릴 무렵, 늘 작업장 처마밑 옹상한 곳에 넣어 놓은 닭 알을 꺼내려다 신기한 그놈을 보았습니다. 해를 품은 닭 알, 레드에그….

실은 그 녀석은 늘 해를 낳았었습니다. 하!



검은콩을? 에이 설마…

농장 이곳저곳에 검은콩이 한 움큼씩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다 걷어 모으면 몇 자루는 나올 듯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아까운 콩을….

실은 농장의 터줏대감 고라니가 저 없는 사이 온 농장을 돌아다니며 싸놓은 고라니 똥입니다.^^

때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풀숲에서 나와 껑충껑충 뛰며 좋아하다 저와 눈을 마주치면 놀란 듯 빤히 쳐다보다 출행랑을 칩니다. 한 번은 떠돌이 개에 쫓기며 제 옆으로 도망치더군요. 개를 쫓아달라는 거였겠지요? 당연히 그래줄 거라고 믿었겠지요?



儉而至陋 검이지루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게!

겨울엔 지난해 새들이 살림을 차렸던 다양한 둥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벌거숭이니 본래 숨겨있던 보금자리들이 빤히 다 들여다 보이지요. 작아도 아무진 것, 크고 투박한 것, 나뭇가지로만 지은 것, 실만 모아다 지은 것, 짓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만둔 것, 사진처럼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등 참 다양하지요.

공동체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게’ 해 주시라고요. 둥지처럼 들여다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요.



봄이 가까이 있네요.

봄이 들어오는 날에도 바람은 참 매서웠습니다. 그런 날이면 농부들은 오히려 느긋합니다. 아직 농사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춥다는 핑계로 여유 부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데 오늘 아침 공기엔 따스한 맛이 들어 있다 싶더니, 아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무 등에 엎드려 잔뜩 움츠려 있던 꽃과 잎 몽우리들이 허리를 쭉 뻐네요. 가슴 뭉클한 반가움이랄까요? 그도 잠시, 이제 서서히 바빠지겠습니다. 좀 긴장해야겠네요.

우리도 허리 쭉 펴고 살아요. *.*

메뚜기의 꿈?

저 메뚜기는 한 겨울에 어찌 이토록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걸까요? 무리를 떠나 높이높이 날아올랐던 그 숭고한 갈매기처럼 별레 한 마리 보다 더 고귀한 이상을 찾아뛰어 오른 것일까요?



‘메뚜기도 한철’이라며 천박한 자본주의에 휘둘리는 우리네는 인간들에 게 자기 종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항거라도 하는 걸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저 화석화된 메뚜기는 사실 지난 가을, 어느 작은 새가 먹이로 남겨둔 것이지요. 알고보면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두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나무도 거세를 한다?

옛 왕궁의 내시들은 거세된 남성들이었지요. 수퇘지도 거세합니다. 맛을 위해서라지요? 오래전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돼지 농장에 불려가 그 일을 시키는 바람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거세합니다.

꽃과 잎망울에서 열매가 될 위치가 아닌 꽃망울들을 제거하고 사진처럼 잎망울만 남깁니다. 열매 안 될 꽂으로 가는 영양을 열매 될 꽃으로 돌리려는 거지요. 그러면 나무의 성장도 빠르고 열매도 더 굽어진답니다. ‘적뢰’라 하지요.

끝내 꽃을 피우리!

‘대프리카(대구)’ 옆 동네에다, 한 여름 가장 더운 곳으로 어김없이 등장하곤 하는 저희 지역에도 오늘 폭설이 내렸습니다. 시골 저희 집 앞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못 오셔서 임시 휴교했고, 그 학교를 졸업해 이제 막 읍네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학교가 정상 수업중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놀았습니다. ^



복사꽃은 아직 멀었는데 눈꽃을 머리에 인 꽃망울은 언뜻 면사포 둘러쓴 신부같기도 하고, 하이얀 전례복 입고 무릎 끓어 기도하는 수도자 같기도 합니다. 참 행복한 날입니다.

우린 얼지 않아요.^

엊그제 눈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참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종일 제 몸보다 더 두꺼운 눈을 지고있던 저 가지는 사실 나무 밑둥지 지름이 적어도 20센티미터는 넘는 나무의 막내랍니다. 길이는 새끼 손가락만 한데, 틀림없이 가장 품질 좋은 열매를 맷을 겁니다. 아래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은 작년 열매의 탯줄이지요.



이번 눈은 나무들 가지에 겨우내 붙어있던 균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꽃과 잎 망울의 마른 목을 축여 주어서, 4월엔 훨씬 더 맑은 빛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성하도다.” 용비 어천가의 한 대목입니다. 나무를 빗대어 나라의 근간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실제로 나무는 굵은 뿌리가 제 키만큼 땅 속 깊이 밑으로 뻗어 내려가야 하고, 잔뿌리들은 제 가지 넓이 만큼 옆으로 쭉 뻗어 나가야 한답니다. 뿌리가 깊고 넓은 곳에서 영양분을 얻은 만큼 그 열매의 맛과 향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장 흙을 손으로 헤집다 옆으로 뻗어 나간 뿌리를 발견하고 흠짓 놀라 제 삶을 물었습니다. 아하!

너도 해바라기?

저희 농장의 꽃들이 올핸 약간 늦습니다. 아마 때늦은 폭설에 차가운 공기가 자꾸 주변을 머뭇거린 탓일 겁니다. 그런데, 참 당당하게, 홀로 하늘을 다 담아내 기라도 하려는 듯, 저렇게 피어 있는 복사꽃은 무엇일까요.



언뜻, 하늘을 나는 하얀 듯단배에 기다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껏 타고 있는 듯 도하고, 놀이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빙빙 잡아 도는 접시를 타며 괴성을 지르는 듯도 하네요. 아니면, 누마가 우주와 대화하기 위해 몰래 세워 놓은 꽂처럼 생긴 접시 안테나를 농부가 찾아버린 것일까요?

KAF 소식

KAF 정기모임 제주에서

이번 모임은 5월 11~12일에 카프 정기모임이 굴꽃향이 가득한 제주에서 있었다. 5월 여러 행사와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여서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진하고 깊은 나눔이 있었던 모임이었다. 문선주 자매와 박향란 자매는 하루 먼저 도착하여 박미영 자매와 함께 깊은 교제를 가졌고 나는 토요일에 김성우 형제와 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11일 저녁은 제주 하늘 가족 교회의 김효중 김현주 부부가 와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 했다. 레스토랑 주인이었던 김효중 김현주 부부의 요리 이야기, 세자매를 대학에 보낸 박미영 자매의 홈스쿨 이야기가 풍성한 식탁 위에 펼쳐졌다. 어떤 틀도

없이 관심 가는 일과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 어떻게 신앙과 삶을 일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공동체 간에 협력과



연대를 공공히 할 수 있는가 하는 토론으로 다과 시간이 채워졌다.

박미영 자매가 준비한 진한 농차는 입안에서 오래도록 향기를 남기고 던져 진 질문은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KAF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KAC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의견을 나눈 것도 의미 있었고, 수월봉에 올라 본 저녁 무렵의 바다와 절물 휴양림의 긴 산책로에서 만난 삼나무 숲도 인상 깊었다.

〈정리 남상욱 형제〉



KAC 소식

KAC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무 이취임식 열려

2018년도 2월까지 KAC총무로
열심히 일해 주신 김복기 형제님
께서 총무의 직임을 마무리하고
차기 총무인 문선주 자매에게로
총무의 역할이 이임되었습니다.

김복기 형제님은 서울에서 진행
되고 있는 메노나이트 서울 모임
에 더욱 전념하시고자 하는 포부
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
4월부터 6월까지 캐나다의 선교사
로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보
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출국하였습니다.

김복기 형제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차기 총무로 일하게 된 문선주 자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AMBS(Anabaptist Mennonite Biblical Seminary)에서 수
학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을 영강쉐마기독학교의 교
사이자 교목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선주 자매는 2015년 3월 KAF와 미국
미시아나 메노나이트 지방회의 인준 하에 한국에서 최초로 메노나이트 목사



로 안수를 받은 자매이기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운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각오가 넘칩니다.

아직은 혼자 하는 사역이므로 외로울 수 있기에 전화(033-242-9615)와 문자(010-9429-3752)와 기도와 후원(425-20-403665 SC제일은행)으로 평화를 위한 KAC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 3월, 4월 리본 모임



3월 리본모임은 김복기형제님이 번역하신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라는 책으로 역자와 함께 하는 리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즘 Me Too운동에 힘입어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영적 권위자들의 위계적 힘에 따른 성폭력 사건을 인식하며, 메노나이트에서 성폭력에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과정을 반추하며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 있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연이어 4월에는 대전 ‘꿈이 있는 교회’의 전남식 목사님과 함께 성폭력의 가해자인 요더의 평화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하고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더의 책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길 소망한다는 말씀은 의미있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3. 제주 4.3 평화 기행 및 진해 평화 행진

4월의 시작과 함께 제주 4.3을 기억하고 평화의 필요를 확인하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평화 기행을 MCSK 청소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아픔이 더 많이 알려지고 제주 땅에 치유를 통한 회복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미래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진해 땅에서 “평화”를 외친 것은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널에서 특별히 다루어겠습니다.

4. 공익 경영 아카데미

문선주 총무는 3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시청 옆 NPO를 위한 사무실에서 열리는 공익 경영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익 경영 아카데미는 비영리 공익단체 실무자들이 비영리 공익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인과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AC의 총무로서, NPO 기관인 KAC의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운동성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9일~20일에는 공익경영아카데미 학생들이 모두 충남 홍성 마을을 방문하는 수학여행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한 단단한 networking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5. 평화로 숨쉬자

PCUSA(미국 장로회 한국선교회)에서 평화운동 관심자들을 초청한 프로그램 ‘평화로 숨 쉬자’를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평화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활동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나눔을 통하여 거시적인 담론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운동을 할 것인지 공동의 평화 선교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평화로 숨 쉬자’에 모이신 기독교 평화 운동가들을 만나면서 KAC 평화운동의 방향은 이런 평화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과의 연대를 통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평화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참여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2일(토)에 자전거 행진을 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함께 해 주신 MCSK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미있는 행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6. KAC 기도제목

1. 그동안 수고하신 김복기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서울에서 시작한 메노나 이트 모임이 교회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많은 귀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2. 문선주 총무가 만남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네트워킹을 촘촘하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3. KAC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한국과 평화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임하도록

“당신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얼른 가서 사과해”

2018년 1월, 한 여검사가 뉴스에 나와 자신이 검찰 내에서 당한 성추행을 폭로함을 시작으로, 각 영역에서 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대한민국을 훑고 지나갔다. 노벨상 후보에까지 거론됐던 이름만 고왔던 시인,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거장으로 불리던 사내들의 추잡한 행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친근한 이미지의 조연배우에 이어, 1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전성기를 맞은 성실과 바른생활 이미지 방송인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TV 프로그램에서 자상한 남편, 딸 바보 행세를 하던 배우는 자기 딸 같은 제자들에게 몹쓸 짓을 했음이 드러났다. 그 중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전도 유망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젊은 정치인의 성폭행이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신념과 실제의 삶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 우 조교 사건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 있은지 2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초등학생 때는 치마를 올리다 못해 치마 속에 입은 바지까지 내리려는 남자아이들, 중고등학생 때는 지하철이며 버스에서 몸을 밀착하고 비벼대는 아저씨들, 대학생 때는 술에 취해 안으려 하고 뾰뽀하려고 하는 남자 교수, 남자 선배들, 심지어 강의 시간에도 어깨를 주무르지 않나 백히그를 하지 않나 아무렇지도 않게 신체 접촉을 하는 교수들 … . 사회인이 되었어도 달라진



송재섭자매
춘천예수촌교회

건 없었다. “여자가 애교도 좀 부리고, 화장도 하고 치마 좀 입고 다녀.”하는 소릴 수없이 들었으며, 술자리에선 상사 옆에서 술도 따르고, 블루스 출 때 손도 잡아드리라고 떠밀리기도 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 하디 평범한 내가 겪은 이야기이며, 여기에 몇 가지 더 보태는 건 일도 아니다. 남편에게 “당신도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얼른 가서 사과해”라고 농담 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에 떳떳한 남자가 몇이나 될까? 결국 이것은 비단 그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당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ME TOO 운동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화가 나는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NO’라고 이야기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NO’라고 얘기해 도 된다는 걸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내 딸에게는 아닌 건 ‘NO’라고 이야기하라고, 좀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얼마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치부 여자아이에게 아이 엄마가 립밤을 발라 주었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남자아이가 “우와, 예뻐졌다. 예뻐졌으니까 뾰뽀해야지”하며 불에 뾰뽀를 쪽 했다. 예전 같으면 애들이 한 행동이니 귀엽다며 웃고 넘겼을 테지만, 아이 엄마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인 성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일 텐데, 올바른 성 의식을 배워야 한다. 여자는 물건이 아니고, 남자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임을 … . 여자의 몸은 소중한 거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소중히 아껴줘야 한다고. 그리고 진정한 남성성은 약자를 억누르고 짓밟고 얻어지는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서 얻어지는 것임을 … .

크리스천으로서 ME TOO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선 둘째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썩어있을 종교계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폭로도 폭로지만, 교회 내에서 깊은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사회나 나나 교회에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 다만, “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식의 간증이나 “자매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면서 그분을 용서해야 됩니다”식의 웃기지도 않는 충고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교회가 피해자를 그냥 좀 안아주면 좋겠다. 누구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슬퍼해주면 좋겠다. 갑질 사태든, 철거민 강제진압 문제든, ME TOO 운동이든,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여기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이 속히 오길 기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피해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눈웃음을 흘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리고, 큰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토닥여주고 싶다. 당신의 용기로 세상이 변화할 거라고 응원해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네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4종 축복 기도』 중

모든 사람의 엄마인 여자의 회침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어린 시절 나는
여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줄 알았다



박동 주목사
춘천 한신교회

그래서일까
병든 아버지를 대신한
전쟁터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딘가를 다친 엄마인 여자는
이불속에 쓰러져 아픔을 토했다
그 때는 몰랐다 그것이 엄마의 고통인지
그냥 피곤한 엄마의 잠꼬대인 줄 알았다

어쩌면
모든 남자와 여자의 엄마인 여자는
재갈물린 닭이 되고
찬장(饌櫈)에 쳐박힌 슬픈 접시가 되어
명치 아래 깊은 곳에
삶의 몸부림을 두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여자와 남자의 엄마인 여자는
생명의 근원을 잊은 세상을 향해
뱃속 아기 세상에 나와 올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살아 있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미투”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외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학 시절 친구와 전공은 같았으나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공강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틈틈이 만났다. 친구는 어느 날부터 지도교수님이 자꾸 자기를 불러서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했다. 처음에는 과대를 대신해서 학과 사무실에서 복사 같은 것을 하나 보다 했고 분명 그런 일들이었는데, 점점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주영 자매
진해주빌리교회

어느 날은 주말에 ○○○스크린골프장으로 커피를 사 오라고 시킨다던가, 외부에서 온 장학금을 손수 현금으로 뽑아서 종이가방에 넣어오는 이상한 심부름을 시켰다. 친구와 나는 “와 이건 좀 너무한데?”하면서 혹시 불안해서 핸드폰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열심히 그 교수를 피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심부름을 해야만 했던 날에는,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부려먹는 그 교수의 파렴치함을 욕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명백히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는 것을 몰랐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했기에 우리는 긴가민가했다. “지도교수면 그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에 뭔가 찝찝하고 부당하면서도 그래도 참을 만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권력을 이용한 은밀한 폭력이었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본다. 폭력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 오직 약자에게만 흐르는 일종의 비열한 물리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성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성의 문제로만 다룰 이야기

도 아니다.

힘의 불균형이 있는 곳, 즉 권력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족 간에도 평등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 존중이 아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 있는 곳이다. 교실 안에도 평등, 수평적 관계가 아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폭력이 있는 곳이다. 국가 안에서도 마찬가지며,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개인과 개인 간에도 폭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약한 곳으로 자꾸만 틈타며 존재해왔다.

한국에서도 미투운동이 일어났고 매일 매일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여기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떡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건을 묻어두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말해도 난 보호받지 못 할 것이고,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며 결국은 나만 더 상처 입을 뿐’이라는 절망적인 판단 속에서 그렇게 억눌리왔을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 숱한 밤들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까? 들어줄 누군가가 없었고 서로를 지킬 연대의 플랫폼이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가해자들과 그 원인에 더 집중해왔던 것이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판단의 뿌리였다. 이런 피해자들의 오랜 절망의 기간은 도망칠 보호막, 함께 싸울 연대의 플랫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픈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우리 스스로가 더욱 폭력에 민감해야 하며 각자가 서로를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연대의 매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연대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드러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상이 공개되었기에 이후의 그녀들 혹은 그들 **남성피해자**의 삶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치유의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범위의 지원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16명을 성폭행한 이윤택감독 처벌

법처럼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쓰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한다. [현재 국회에 이 조항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회복을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의 연대는 지속될것이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 스스로를 예민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나도 누군가보다 권력이 작을 수 있으며, 또 누군가보다는 권력과 힘이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괴물”이 되어 누군가를 피 훌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며칠전 학생들이 내게 물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그게 불쾌했어요.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이 아이는 진지했다. 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앞으로도 네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 “머리 쓰다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머리 쓰다듬는 거 싫어해요.” 같은 말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찝찝함은 남는다. 정말 선생님은 모르고 쓰다듬은 것이 맞을까? 이 “모르고”는 정당화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선생이라는 권력에 있지 않을까? 자신이 선생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었다면 아이한테 당연스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었을까? 아이의 표정을 보지도 않았단 걸까, 아이의 입장은 과연 생각했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선생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 후의 일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운 이유는 권력이라는 이유일 것이고 권력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의 칭찬의 행위라도 어떤 학생에게는 칭찬의 의미가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 도달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말을 뱉고 행동을 해버린다.

나도 반성한다. 선생님이라는 입장으로 그 권력 하나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 본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할 것이다. 그것은 조그마한 힘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가진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이 폭력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늘 나보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 미투운동은 권력형 폭력, 그중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운동이지만, 다른 폭력은 얼마나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폭력은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힘의 불균형에서 생겨나고, 그래서 힘이 있는 한 폭력은 늘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적일 수 있다. 늘 존재할 것을 알기에 늘 예민하게 괴물이 되지 않게끔 나 스스로를 점검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을 지켜볼 것이고 폭력을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였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야 한다. 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개별적인 지원 또한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은 계속해서 더 낮은 곳을 찾아서 훌러갈 것이고 정의 또한 강물같이 아래로 아래로 훌러갈 것이다.

끊임없이 ….

예수의 일상

고등학생 때부터 페미니스트라 생각해왔다. 성 정체성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스스로 충분히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난, ‘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페미니즘이 고마웠다. 외국 살다 들어와 한국 문화가 낯설었고, 그 중 성차 별적 요소가 가장 불편했다. 남자와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어울리지 못해 속상했다. 친구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성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며 성차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부류였다. 언제부터인가 이상형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자였고, 그런 분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고학준 형제
충남 논산

“이 정도 이력이면 웬만한 대한민국 남성보다 성평등 지수가 더 높고, 미투에 대해 더 깨어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할수록 자신이 없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추행/희롱/차별 앞에서 난 무얼 했는가 자문해보니 잘 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암묵적 동의와 무관심으로 방관한 사건들이 수없이 떠오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가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두렵다. 더 많이 안다고 더 잘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더 배운 사람일수록 내가 느낀 것보다는 느껴야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해야 하는 걸 표현한다. 반복될수록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된다. 타인을 속이다 스스로 속는다.

사회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훌륭한 교회로 옮긴 적이 있다.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며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아니었다. 바빠진 일상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빈도는 훨씬 더 줄었고, 삶은 훨씬 더 방탕했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설교를 듣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며 나도 아름다운 줄 착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잘 모른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음행하고 잡혀온 여인, 그리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일화도 한번 찾아본다. 난 어떤 피해자와 함께 울고,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난 여자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결코 여자 입장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높은 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내가 일갈한다. 이건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고. 그렇구나. 평계거리가 없어진다. 짓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 되려면,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의 자리를 기꺼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빈민촌에 들어가 산다고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지 않는다. 나는 떠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파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당한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두들겨 맞을 때, 그런 고통의 순간에 비로소 관계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발과 손이 좋기는커녕 아직 내 마음 주는 곳도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윤동주, “십자가” 중

시인이 조사인 “처럼”을 별도의 행으로 놓 이유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김응교 시인은 해설한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여러 차원이 있겠으나 내겐 성령의 힘으로 하루 하루를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사생 애私生涯가 궁금하다. 예수가 마지막 공생애 3년이 아니라 인생의 첫 30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알고싶다.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까. 목수, 아들, 친구, 동네 오빠로서의 예수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2018년 한국에서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집 장남이자 29살 건설 일용직이었다면, 그는 미투 운동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의 아픔과 거대한 담론을 어떻게 일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끌고 내려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겐 어렵기만 하다.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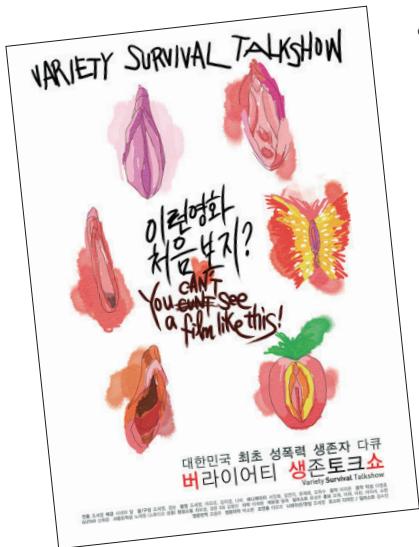
감독: 조세영 | 주연: 메이 보짱 한새 자비 강연

지난 3월 미투 운동으로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토론토 대학에서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상영 얼마 전 나는 차기 대권후보로 언급되던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터였다.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9년에 제작된 독립영화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모임인 “작은 말하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리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유쾌하게 밀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폭행 및 성추행이라는 행위가 피해자를 파괴하며, 피해 이후로도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양종규 형제
캐나다 토론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회적 구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은 전적으로 피해자 몫이며,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조차 거의 없었다. 영화 초반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작은 말하기’라는 모임에서, 다큐멘터리 참여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 중 ‘안전’ 한 공간에 대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보았다. 다큐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외부인이 안전한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 혹은 얼굴이 알려졌을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 오가는 논쟁 속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는 제한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조세영 감독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생존자의 얼굴이 드러난 다큐를 찍기 원했던 이유는 미디어에 나오는 피해생존자의 얼굴이 항상 모자이크 처리됨으로써 피해생존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이 오버랩되는 미디어의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에 얼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청계광장에 첫 공개 상영을 한 후에도 배급과 상영에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억압적 이야기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인터뷰한 30대 이상 50대 남성들이 성폭행 피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여자들의 옷이 문제야”, “왜 밤에 다니냐”,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등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의 인터뷰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재판과정에서조차도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 판사들의 피해자가 어떻게 고통받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무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질문과 남성 가해자가 계획적이 아닌 성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오히려 변호하며 형량을 낮추는 경우, 가해자 측의 회유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가족들끼리 합의하는 경우 등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외시켜버리는 과정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과 성추행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수많은 여성 비하적 이야기들과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농담으로 치장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특히 군대에서는 성적 농담들과 성폭력적 언어들의 일상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 경험을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하며 여성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방관자와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또한 결혼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성이 겪는 이 고통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 중심적 문화와 언어들이 여성들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 여성은 쉽게 대상화하거나 ‘여성은 아래야 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들었다. 나도 이러한 잣대와 문화, 언어에 불편함을 모른 채 비판 없이 수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한 남성으로서, 또 방관자로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듈다.

그리고 모든 사회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여성에 대한 언어들을 바꿔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심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여성을 평가하는 말, 사회적 편견으로 여성은 규정하는 말, 대상화하며 쳐다보는 행동들,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삼는 영화와 영상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편견이 담긴 여성 혐오적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언어들이 내가 속한 모임에서 사용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언어들을 배척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 말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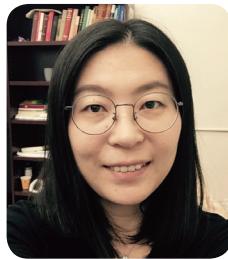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 이 후, 평화 신학에 대한 재고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 사건은 여러 면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를 만나, 평화라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결심하고, 평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택하기까지 요더의 신학은 나에게 아나뱁티스트 평화 신학을 이해하는 길잡이이자 초석과 같았다. 2014년부터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Mennonite Quarterly Review 2015년 1월호에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때는 2016년 토론토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KAC 모임에서 우연히 레이첼 구센-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메노나이트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확실히 기억하는 나의 첫 변화는 감정적인 것이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수 없이 보아온 책 표지에 인쇄된 요더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앞에 놓인 책을 뒤집었다. 누군가는 이런 반응에 대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조차 왜 그런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해 온, 그의 얼굴에 비친, 은밀하고 때로는 미묘한 일상적 폭력에 저항하는 내 몸의 지극히 건강한 정서적 반응일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분별에 소명을 갖고 살고자 하는 아나뱁티스트로서 20세기 평화 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더의



염혜정 자매
캐나다 토론토

신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특별히, 북미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 메노나이트라는 나의 혼합된 정체성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여러 간극은 나의 고민을 더욱 복잡하게 했다. 북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에서 평화 신학이 갖는 의미의 차이 사이에서, 여전히 남성이 형성한 지식이 주된 권위를 갖고 있는 학계와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에서, 유럽계 메노나이트가 대다수인 북미 교회와 학계에서 소수 인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혹은 어떤 면에서 대치하기도 하는 평화 신학에 대한 질문들은 내 안에서 복잡하게 얹혀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주변화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평화를 위해서는 노골적이든 암묵적이든 역사적으로 침묵을 강요받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무시되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큰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고, 신학적인 분별에 있어서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즉, 신학적 분별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학자들의 신학만큼이나 쉽게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했다.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평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추구하는 평화 신학에서 요더의 신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즉, 평화 신학자 요더의 성폭력의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평화 신학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좀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침묵 당해 온 주변화된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로부터 평화 신학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평화” 신학이 추구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평화인가? 주변화되었던 이들이 평화 신학에서 말하는 평화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평화의 주체적 참여자가 될 때, 평화 신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ABC뉴스의 종교와 윤리란에 “‘존중할 만한 문화’에 대한 변호: 존 하워드 요더의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는 제목으

로 스텐리 하우어워스가 쓴 기고문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The Christian Century*에 실린 제나 헌터-바우만 Janna L. Hunter-Bowman의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글을 살펴보는 것은 요더의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그의 신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

“‘존중할 만한 문화’에 대한 변호”에서 하우어워스는 요더의 신학에 빛을 지고 그를 주류 기독교에 소개한 사람으로서, 요더의 성폭력 사건의 재조명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방어적인 마음과 여전히 이 글을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 그럼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 많은 사람들의 독려로 쓰게 된 이 글은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요더의 행동과 신학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한나의 아이』 *Hannah's Child*에서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이미 표현했지만, 교회의 치리 과정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설명한 점과 요더에 의해 학대당한 여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또한, 그는 요더를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신학자 중 하나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매우 초조함을 느꼈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은 피해 여성의 수가 광범위하다는 것과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충격

1 이 글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하우어워스와 헌터바우만의 글 전체를 요약하며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장에 대한 개별적인 각주를 달지 않았다. 이 글에 사용한 문장은 요약적 형태로 문장 대 문장으로 번역한 글이 아님을 밝힌다.

Hauerwas, Stanley. “In Defence of ‘Our Respectable Culture’: Trying to Make Sense of John Howard Yoder’s Sexual Abuse.” ABC News,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7 Oct. 2017, www.abc.net.au/religion/articles/2017/10/18/4751367.htm.

Hunter-Bowman, Janna. “Stanley Hauerwas’s Response to John Howard Yoder’s Legacy of Abuse Is All about Yoder.” The Christian Century, www.christiancentury.org/blog-post/guest-post/opportunity-stanley-hauerwas-missed.

에 대해 잘 몰랐으며 좀 더 솔직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다소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며 글을 시작한다.

하우어워스는 데이빗 크레이머, 제니 하우웰, 조나단 트랜, 폴 마틴²이 주장한 대로 여성들과의 비성적 관계nonsexual relations에 관한 요더의 실험이 타인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비폭력을 주장한 요더 자신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으며, 치리 과정에서 협조에 거부한 것 또한 그의 교회론에 모순되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요더의 실험이 그의 신학과 일치하는 지점이라며 요더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하우어워스는 요더가 비생식기적 정서적 관계non-genital affective relationships를 근원적 혁명에서 제시한 새 시대의 시작에 따른 구별된 공동체적 삶의 한 방식으로서 실험했다는 것은 기괴하고 bizarre 악한demonic 행위이며, 여성과의 접촉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신약과 기독교 전통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더는 자신의 실험에 대한 밀러의 비판이 “존중할 만한 문화에 대한 합의consensus of our respectable culture” –요더가 종종 중산층을 위한 윤리에 대해 경멸조로 사용한 용어–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하우어워스는 상대의 동의가 있는 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요더의 태도는 오히려 중산층의 성 의식과 상황 윤리의 방식과 비슷하며, 요더의 주장과는 다르게 결혼 제도와 같은 “존중할 만한 문화에 대한 합의”는 어렵게 얻은 지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하우어워스는 조심스럽게 교회와 세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요더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요더의 신학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 즉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우

² Cramer, David, et al., “Theology and Misconduct: The Case of John Howard Yoder.” *The Christian Century*, www.christiancentury.org/article/2014-07/theology-and-misconduct.

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우정, 소외, 사랑에 관해 요더의 신학과 자신의 신학을 비교 연구한 알렉스 사이더의 글을 인용하면서, 요더의 신학에는 뱅티즘의 사회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뱅티즘을 통해 새로운 인류`new humanity`에 속한 후에도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이해되는 행복과 같은 인간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고 말한다. 즉, 요더의 신학에서는 “비폭력”이라는 옳은 것을 말하면, 혹은 비폭력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비폭력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moral formation`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즉, 도덕적 상상력을 갖고 “공감 empathy”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trained`”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는 요더의 행동과 그의 신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 한다. 하우어워스는 요더가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요더의 신학을 계속해서 읽으려면 그가 놓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요더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요더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읽히지 않기로 결정한 동료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또한 많은 젊은 메노나이트 학자들이 요더의 신학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 신학을 시도하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세기의 평화 교회 신학에서 대해 요더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지 모르겠다는 제럴드 쉴라바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에게는 요더의 신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황하고 방어적인 어투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음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메리 구쓰와 스탠 고프의 페니미즘에 공감을 표하면서, 비폭력에 헌신한 이들은 가부장제와 폭력, 남성적 시선의 강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더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페미니즘의 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다. 또한, 자신이 메노나이트 입장에서 말할 수 없고, 사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점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다소 회피적 어투 및 마틴 루터 킹, 칼 바르트, 폴 텔리히 또한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주목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점을 요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마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의도가 불분명한 글과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글을 썼다는 뉘앙스의 말로 요더의 성폭력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공식적인 응답은 다소 실망스럽게 마무리되었다. 그간 하우어워스가 요더와 그의 신학에 대해 보인 열정만큼의 책임 있는 신학적 고민과 태도를 기대했기 때문인지, 그가 드러내고 있는 솔직함에 공감되기보다는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마무리에 아쉬움을 느꼈다.

하우어워스의 글에 대해 평화학 및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인 제나 헌터바우만은 “하우어워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글에서 비슷한 실망감을 표현한다. 특별히, 그는 하우어워스의 글이 요더에 의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필요와 염려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터바우만은 3년 전에 출판된 요더의 성폭력에 대해 하우어워스가 받았을 충격과 그로 인한 재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만, 재조정 recalibration은 방향의 재조정 reorientation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 또한 요더 신학의 주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쟁 폐해를 입은 콜롬비아에서 관찰한 정치적 폭력과 평화라는 논문을 썼고, 현재 AMBS에서 요더가 재직했던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신학적 형성에 요더가 끼친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요더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헌터바우만 주장하는 바는 요더의 신학은 그가 행한 폭력에 연루되어 있으며 성폭력 생존자의 관점으로 그의 평화 신학을 재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응답을 생존자의 관점을 갖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헌

터바우만은 ① 요더의 성폭력에 관한 정의의 회복에 있어서 생존자들의 역할과 회복적 정의, ② 생존자 관점에서의 메시아적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 주목한다.

헌터바우만에 따르면, 하우어워스는 요더의 폭력에 의해 삶이 훼손된 여성들을 언급하지만 그의 응답에서 이들은 주변에 머물 뿐이다. 그는 이 여성들을 단지 힘없는 희생자로 묘사할 뿐, 이들이 단지 희생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요더의 폭력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하우어워스가 언급한 구센의 요더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야수의 송곳니를 뽑다』는 생존자들이 MCUSA Mennonite Church USA 의 분별 그룹에 연구를 시작하도록 촉구한 결과이며, 생존자들의 영향력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또한, 헌터바우만은 “회복적 정의와 생존자에 대한 변호는 폭력에 대한 반응에서 왜 생존자가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 AMBS에서는 “기관의 사과, 고백, 애도의 과정”을 포함한 생존자 중심의 예배를 해왔으며, 이러한 생존자 중심 예배는 “깊은 치유와 변혁의 과정”이었다.

두 번째로 하우어워스는 요더의 신학이 신앙의 형성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부재가 미치는 영향은 다루고 있지 않다. 헌터바우만은 “요더의 행동과 신학이 일치하는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하우어워스가 지닌 요더 신학과의 밀접함에 상응하는 만큼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헌터바우만 자신도 이 일에 대해 행복하지 않지만, 이 답변에 대한 씨름은 “요더의 신학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지워진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요더가 제시한 불의한 권세에 맞서는 평화와 비폭력의 신학은 권력의 비대칭성을 남용한 요더의 폭력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터바우만은 신학적 생각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으며, “요더의 신학은 그의 폭력과 연루되어 있다.”고 말한다.

요더가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하우어 워스와는 달리, 헌터바우만은 요더의 행위와 신학을 연관시켜 요더 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요더는 메시아적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함으로써,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 내부의 폭력에 대한 외부 점검자로서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에서 요더의 신학은 요더의 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헌터바우만은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더의 메시아적 종말론에서 메시아적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다. 즉, 메시아적 공동체와 이들의 실천은 “국가의 권력을 발판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콜롬비아의 공동체와 함께했던 헌터바우만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공동체들은 메시아적 순간들에서만 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딛고 있는 곳의 조건과 정부의 반응이 바뀌면 “국가를 포함한 외부자들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요더의 신학은 공동체가 사회의 변화에 참여하는 실질적 지침을 고려하는데 실패했다. 더 나아가, 요더가 제시한 이상적 교회론에 따르면 “메시아적 공동체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즉, “메시아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국가에 의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메시아적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폭력의 피해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점검과 상호 책임의 시스템”으로부터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터바우만은 생존자의 관점으로 평화 신학이 재고돼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요더는 한 세대의 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가 썼던 것에 대해 제대로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폭력을 허락하고 보호하는 신학적 범주를 정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놓는 평화 신학에 대한 건실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요더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인 하우어워스와 헌터바우만이 요더의 성폭력 사건과 신학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두 사람의 결론에 함축되어 있는 듯 하다. 예기치 않은 현실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계속해서 혼란 속에 머물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할 것인가. 각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혼란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하지만 현실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때 혼란을 넘어서는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씨름하며 대안을 모색해 가고자 할 때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한다.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한 이후로, 나는 요더의 평화 신학을 예전처럼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수 많은 여성들에게 행한 자신의 행위를 폭력이 아닌 장기 이식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외과 의사의 불가피한 위험 부담으로 비유한 요더가 제시하는 평화 신학이 과연 약자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신학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 평화 신학에서 현실의 폭력을 직시하지 않은 채 형성된 평화의 담론을 바탕으로 한 “평화”는 현실에서의 폭력을 묵인하는 개념적, 이론적 평화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신학적 논리 전개의 탁월함에서 나온 신학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화 신학의 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요더의 평화 신학은 누구를 위한 신학이며, 그가 말한 평화는 누구를 위

3 “‘Defanging the Beast’: Mennonite Responses to John Howard Yoder’s Sexual Abuse.”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Volume LXXXIX, Number One, by Rachel Waltner Goossen, Mennonite Quarterly Review Publication Committee, Goshen College, 2015, 37–38.

한 평화인가? 그의 신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에 봉사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낳는가? 또한, 공동체 내의 광범위한 폭력에 연루된 요더의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혹은 그의 폭력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아나뱁티스트 전체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해석의 공동체”에서 지식적 탁월함 혹은 담론적 권력을 가진 사람은 폭력이 연루된 그의 삶과는 별개로 공동체에서 해석적 권위신학 포함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아나뱁티스트가 추구하는 제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 우리는 답하기 쉽지 않은 이 질문들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것이다.

아나뱁티스트 공동체는 쉽지 않은 시험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기회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아나뱁티스트 신학의 상당 부분을 점유해온 요더 신학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한 사람의 탁월한 신학자의 신학적 분별에 대한 의존을 넘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해석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기회일 수도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탁월성이 아닌 공동체적 이해와 해석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 전통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안전한 것을 잃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통해 새롭게 빛어질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다양한 빛깔을 내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야수의 송곳니를 뽑는 일

1

이 일은 저기 멀리 미국에서만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벼짓이 그러나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 책은 유명한 신학자로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죄의 폐해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성과 천재성을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바라보게 한다. 이는 단지 한번 일어났다가 이미 과거로 사라진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우리 주변의 일이다.

천재 신학자 요더는 죽고 갔지만, 그의 학문적 탁월함을 통해 기독교 윤리학, 평화학, 교회론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리고 그가 끼친 영향력만큼이나 그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관계가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는지 보여주었다. 상처에 알코올을 들이부을 때 느끼는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한 성추행의 아픔이 아닐까 싶다. 성추행 피해자, 희생자 혹은 생존자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를 앞에 두고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번역하는 일 역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때 내가 사랑했던 신학자, 그리고 여전히 부여잡고



김복기 형제
캐나다메노나이트선교사

있는 존 하워드 요더라는 한 인물과 그의 실패를 이렇게라도 드러내는 일은 차마 뒤로 미룰 수 없는 큰 숙제였다. 그야말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한국에 그를 소개한 죄가 있기에 내 몸이 심하게 아픈 반응을 보이더라도 참아가면서 번역을 감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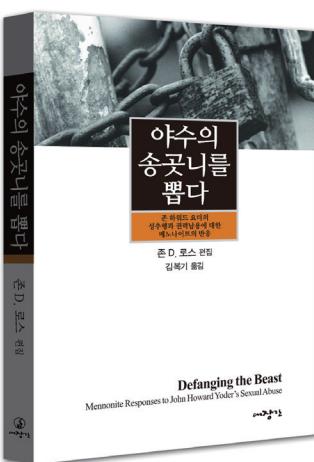
2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 생각하기에도 버거운 내용의 이 책을 번역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은 존 하워드 요더라는 신학자가 내가 3년간 공부했던 AMBS의 교수이자 신학자였고, 같은 메노나이트 교회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는 죽고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의 책을 통해 교회론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씨름이 시작되었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교회론에 관한 책 중에 『교회, 그 몸의 정치』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책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몇몇 장소에서 그의 책을 교재로 평화학 강의를 진행했고, 몇몇 언론사로부터 요더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받기도 했다. 또

한 요더에 대한 글을 연재했던 경력이 있기에 적어도 한국 독자들에게 메노나이트들이 고민하고 있는 정직한 모습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만큼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어디 또 있으랴마는, 인간의 성만큼 왜곡된 것이 또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이 땅위에 사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행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과학의 발달로 예외의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과 성이라는 선물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아무렇게나 꺼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금기시되어 온 주제라 실제로 성추행이 일어나도 모두가 쉬쉬하며 문제를 감추거나 더 키우는 면이 없지 않다. 지금 한국 상황도 예외는 아니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교회내의 성추행에 대한 여러 사건 중, 분별의 과정을 겪으며 철저하게 그 여정을 기록한 자료로 요더의 사건이 발표되어 이를 꼭 소개하고 싶었다.

네 번째 이유는 1) 인간의 성만큼 신비하면서도 성스러운 것은 없으나, 이 사회가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성을 묘사하는 만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과 2) 약자들의 피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고 3) 그 누구도 기꺼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 여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동일한 행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요더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요더의 책을 읽고 좋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의 관심사는 요더의 책을 계속 읽어야 하는

가 말아야 하는가?에 있지 않다. 내

가 한때 사랑했던 그를 계속 사랑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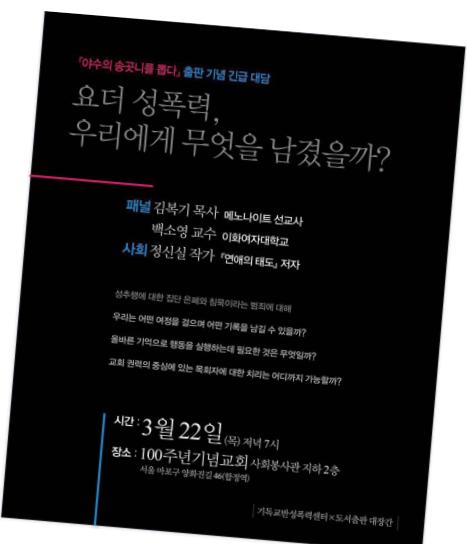
수 있을까 없을까? 라든가 그의 신학

과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있지도 않다. 무엇보다 나의 관심사

는 요더의 성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

한 “사실”을 알리고, 그의 성추행



에 대한 뜬소문이나 2차적 정보가 아닌 1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진짜 관심은 이러한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대처해야 할 방안들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예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들어있는 여섯 꼭지의 글이 큰 유익을 주리라 생각한다.

3

개인적으로 나는 채 18세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추행한 리더를 직면하여 성추행의 면모를 밝혀낸 적이 있었다. 쉽지 않은 싸움을 감행한 경험이 있다. 20여 년 전 당시, 나는 성추행을 자행한 그 사람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모진 공격을 받아야 했고, 관계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리더들의 성추행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직장, 학교, 군부대, 종교기관, 종교 단체, 관공서 등지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더 슬픈 것은 성추행을 일삼은 리더들이 벼젓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거나 징계하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간사가 훈련을 받는 여학생들을 짓밟는 일이나, 유명한 목사가 꽂다운 청소년을 짓밟았을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리더들이 소리소문없이 간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모습과 장로교 노회의 목사들이 불륜을 일삼은 목사를 서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내가 경험한 세 건의 성폭력 사건은 캠퍼스 선교단체, 장로교 안에서의 목회자 성추행, 공동체 안에서의 성추행 사건이었다. 물론 이 일을 경험했던 당시는 나는 나아도 어렸거니와 어떻게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막아보려 했기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캠퍼스 선교단체 건은 여러 사건으로 일파만파 번지자, 리더

십들이 쉬쉬하는 가운데 간사를 경질하는 식으로 일단락되었고, 장로교 안에서의 목회자 성추행은 당사자와 부모에게만 알리고 피해 고등학생의 트라우마와 회복에는 관심 없이 교회가 이들을 왕따시킨 후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의 문제 있는 목사와 바꿔치기 하는 모습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마땅히 처리해야 할 위계질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일로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그 공동체 리더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이러한 사건은 경찰에 알려서 처리를 해야 더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약한 자들을 돋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관계의 미련을 두지 않았다.

4

여러 맥락 속에서 이 책의 번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비록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기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성폭력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한 신학자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가 속했던 학교, 교회, 지인들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성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독자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한 유명한 신학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가 저술한 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피해자와 그들의 힘겨운 여정을 같이하는 가족 및 지인들의 기쁜 호흡을 같이 느끼며 이 깨지기 쉬운 그릇 속에 담긴 영혼 또한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함께 공감하며 읽으면 좋겠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될 때, 함께 지어진 인간의 성이란 무엇인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격

성과 취약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을 배워왔고 말하고 표현해 왔는가? 그리고 특별히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되었으나 존중받지 못한 채 짓밟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는가? 과연 이 사회는 내가 속한 집단 특히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함께 질문하며 고민하고 싶다.

이 책의 전반부는 요더의 성폭력 일지라고 보아도 될 만큼 그의 성추행이 진행된 20년간의 역사와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연구조사를 시행한 저자 레이첼 구센이 붙인 논문의 제목처럼 특별히 종교와 거룩이라는 이름을 포장해 놓은 채 자행되는 성폭력이라는 야수의 송곳니를 뽑아 내야할 때가 왔다.

부디 이 번역본이 이 땅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로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어두운 그늘을 밝혀주는 데 일조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글은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의 역자 서문임〉

MeToo

이 운동은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싸움이다.

억압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권침해적인 폭력을 가하는 남자와 싸우는 것이다.

여자는 생존권을 걸고 싸우게 된다.

우리는 이 여자와 연대해야 한다.

마가복음의 여성관

마가복음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외에 다음과 같다.(막 16:1–8) 예수의 수난과 부활의 현장에 등장하는 여성(막 16:1–8),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한 일(막 1:29–31), 예수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성을 치유하고, 아이로의 딸을 살려준 사건(막 5:21–43), 예수가 수로보니게 여성의 딸이 귀신들린 것을 고쳐준 사건(막 7:24–30),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와 가난한 과부가 보여준 모범에 대한 예수의 반응(막 12:38–44), 베다니에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성(막 14:3–9)을 묘사한 것이다.¹



조석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1) 여성에 대한 긍정적 묘사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병든 여인들을 아무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만지는 것이 율법에서 금지된 일이었고,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역시 부정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들이 예수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고 만져주신다. 더욱이 수로보니게 여

1) 블랑크(J. Blank), ‘예수 전승에 등장하는 여성들’ , 다우첸베르크(G. Dautzenberg) 외 2인 편집, 윤선아 역, 『원시 그리스도교의 여성』 (왜관: 분도출판사, 1992), 9–116. 특히 15–35를 참조하라.

성은 그리스인으로서 시리아 페니키아인이었다.² 하지만 예수는 율법보다 여성의 고통과 질병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방인 여성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의 경우 아주 독특하게 여성을 남성과 비교하며 높이 평가한다. 마가복음은 여성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다.³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의 수난 현장을 묘사하면서 여성의 존재를 분명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복음서의 예수의 수난 사화에서 여성을 등장시켜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기술한 것은 여성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묘사이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성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 예수의 열두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과 매우 대조를 이룬다.(참조. 막 15:39–41, 47)

“(39)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 (47)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 15:39–41, 47)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여성을 기록하고 있다.⁴ 마가복음의

2) 도나휴(J.R. Donahue), 해링턴(D.J. Harrington), 조장윤 역, 『마르코복음서』(세종: 대전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7), 351–52를 참조하라.

3) 김득중, 『주요 주제를 통해서본 복음서들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356–83을 참조하라.

4) 사사구, 『신약성서의 여성관』, 63–77을 참조하라.

저자가 여성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시 여성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다.

2) 여성의 이혼 권리(막 10:1-21)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혼 문제를 다루는 마가복음 10장 1-21절에서 예수의 교훈을 소개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저자의 입장과 예수의 관점을 적절히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인 19장 1-12절에 등장한다.⁵ 마태복음의 기록과 다른 점은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라고 교훈한 내용이다. 남성들의 자유로운 이혼에 대하여 예수는 분명히 이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며 남성들에게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참조. 마 19:6, 9)

하지만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12절에서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기술한다. 이 구절은 매우 독특한 내용으로 여성이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권한 즉, 여성의 이혼 권리를 의미한다.⁶ 이 말씀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의 말씀이기보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리스와 로마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과 이혼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사상을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⁷ 당시 로마사회에서 여성의 이혼은 법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본문의 비평에 앞서서 마가복음 10장 11-12절은 분명히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⁸

요약하면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병든 여인들을 아무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5) 마태복음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 배경은 전통적인 유대 율법과 관습이다(참조. 마 5:32; 19:9).

6) 김득중, 『주요 주제를 통해서본 복음서들의 신학』, 381-83을 보라.

7) Donahue and Harrington, 『마르코복음서』, 447을 참조하라.

8) Donahue and Harrington, 『마르코복음서』, 447-52를 참조하라.

치료해 주신 사건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여성은 소개할 때 남자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존재를 매우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가장 특별한 것은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마가복음은 남성의 고유한 권한으로 소개하지 않고, 여성도 이혼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⁹ 이혼에 관한 마가복음의 사상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있다는 것이다.

〈이 원고는 조석민 교수의 『신약성서의 여성』(대장간, 2018)에서 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9) 1세기 유대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가 있었다. 남편이 악취가 나는 세 종류의 직업(개똥수거자, 구리대장장이, 무두장이)에 종사하거나, 나병 또는 종양에 걸린 경우에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참조. Jeremias,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383, 388-89를 참조하라.

4월이 오면,

제주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백에 귀 기울이시는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이 오면 제주의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들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아름답기만 한데 제주의 사람들은 어딘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희미하고, 저마다 다르게 말하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 성 우 형제
제주하늘가족교회

아무도 찾지 않던 갈릴리를 찾아가신 하나님 ….

침묵하고 외면하던 제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긴긴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슬픔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평화와 자유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있었던 4.3의 상처가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단죄당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토록 당신을 찾았는데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억압당할 때에도 왜 침묵하셨습니까? 집이 불타고, 이유 없이 끌려갈 때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 숨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4.3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와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사 당신을 알아보기 시

작하였습니다. 70년전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 하였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우리선조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침묵하였고, 동조하였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70년 동안 침묵하고, 동조하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을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걷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4.3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

일어나 걸으라. 평화의 길을 걸으라 !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 !

아픔과 슬픔이 용서와 기쁨으로 바뀌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따라 평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더디고, 귀찮아도 주님의 걸음을 따르겠습니다. 욕먹고, 빼앗겨도 주님과 함께 슬프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외면하고, 동조하고, 단죄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주4.3은 비극이다!

김성우형제 : 1961년생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91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다가 47세에 아내와아들셋과 함께 제주로 돌아와서 유기농으로 10년째 농사를 짓는 착한농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화를 이루는 삶과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주4.3은 돌이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떤 사건이나 살펴보면 배경이 중요하다. 봄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4.3은 1947년 3월 1일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5년은 두려움, 고통 그리고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버린 한해였다. 특히나 제주의 섬이 그랬다. 일본은 연합군과의 최후전쟁 방어기지로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물이 나지 않는 돌밭투성이 제주의 토양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연합군 공격에 대비한 방어기지 구축에 강제 동원되어 농사는 손을 댈 수도 없었다. 먹을 것은 일제에 수탈당하고 기근에다 농사를 망쳐서 기아에 놓인 것이다.

제주가 고향인 사람들은 일본과 만주에서 되돌아 왔다. 먹을 것이 없는 제주는 식량난과 생필품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해방되면서 미국 군정에 의해 다스려졌다. 미국 군정은 제주도민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었다. 손쉬운 방법으로 일본강점기 때 관리들과 경찰을 통해 도정을 이끌어갔다. 경찰과 미국 군정은 도민의 삶을 돌아보는 대신 부정부패에 빠져 시민들의 지탄의



김 성 우 형제
제주하늘가족교회

대상이 되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국이며 고향에 돌아와 마을 재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부패 그 자체였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와 미국 군정에 의한 혼란 그리고 불법은 제주도민의 처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은 미국 군정의 불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경찰은 발포했고 도민은 파업에 돌입했다. 95%의 총파업이었다. 경찰지휘부는 사과 대신 주민들에게 발포의 원인을 돌렸고, 도민은 현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4월 3일 무장대의 지서 습격은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4.3의 당위성을 찾아 토벌대의 학살과 초토화 작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중앙에서 바라본 제주는 골칫거리였다. 5.10선거를 강제하자 선거를 피하려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투표자가 적어 제주 투표는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이승만 정부에게는 제주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

한편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이념논쟁을 하면서 제주도를 지목하였다. 제주에서 데모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주를 조용히 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에게 제주의 완전한 진압-제주의 초토화를 제안했고,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의 지원받는 조건으로 반대하는 완전한 진압을 위한 학살에 들어간 것이다. 오라리 경찰서 방화사건은 미국과 토벌대와 경찰이 꾸민 자작극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평화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면서 본격적인 섬멸 작전이 시작되고 제주는 온 산천이 살육터가 되고 거처는 불태워졌다.

본격적인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은 공공연하게 제주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

제주도민을 모두다 없애고,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제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 이승만

제주는 섬 전체가 빨갱이섬이 되어버렸다. – 이승만

제주섬 전체를 태워없애야 한다. – 조병옥

우리에게 진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다. – 미국군정

우리는 이승만에게 세뇌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빨갱이로 보였다.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했다. – 서북청년단

제주 4.3은 비극이다.

일어날 수 없는 조건들이 각각의 논리와 목적을 위해 무참하게 살해된 학살극이다. 모든 관계와 기반을 파괴해 버린 참혹한 역사이다. 거짓과 권력에 의해 역사를 숨기려고 옥죄어온 역사이다. 가해자만이 소리를 내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아온 침묵의 역사이다. 2001년 피해 사례 증언집의 제목은 말한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떠난는지 말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사정도 슬픔의 응어리도 말하면 않 되는 상황을 50년 넘도록 살아 왔다. 제주도민은 모른다. 우리집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 외에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살아왔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감시하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4.3 발생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사건의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증거들은 훼손되고 인멸되어 버린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50년간 피해자들은 억울한 누명인 빨갱이 사람들로 분류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다. 4.3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물명진(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가해자편에 섰던 사람들은 제주사회에 기득권이 되고, 피해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며 살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경찰 그리고 가해자들의 감시아래 50년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제주는 섬이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상호부조의 생활 공동체였다. 대문 없고, 거지 없고, 도둑이 없는 섬이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을 나누는 것으로 부조를 대신했던 상호부조의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는 평화로운 섬이었다. 전쟁기지가 되기 전까지는, 4.3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주는 평화를 꿈꾸는 평화로운 섬이었다. 100년 넘게 몽고의 지배를 받고, 조선시대 200년 넘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유배지가 되고, 제주 전체를 전쟁기지로 만드는 상황에서도 제주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제주 곳곳에서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다. 1907년 평양 부흥이 있고 나서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파송되면서 제주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건물을 세우고, 교회조직을 하면서 제주의 교회는 선교대상이 되고 교단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자생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화석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의 사람들은 순수하다. 사도행전의 베뢰아 사람들처럼 열심과 인내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가정기도 모임 형태의 가정교회가 그대로 있었다면 4.3은 다르게 전개되고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학살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편이 아닌 피해자편에 섰을 것이다. 서북청년단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에서 기독교가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인 것처럼…

제주에서 가장 모욕적인 욕은 “육지 것”이다. 제주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종교는 “기독교”이다. 제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 셋은 하나로 합쳐진다. 기독교이다. 제주 사회를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책임은 사실은 기독교이다. 대통령 이승만, 경무국장 조병옥은 감리교 지도자였다. 제주가 빨갱이 섬이 되었으니 민족을 위해 빨

갱이를 소탕해야 한다. 서북청년단조직을 지원하고, 제주로 내려가도록 정당성을 제공한 것은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이다.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60년이 넘도록 이러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주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이익과 명예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교회 목사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신도들의 현금을 위해 일할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내가 자라면서 들어온 이야기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에게서 신비로움도, 거룩함도 기대하지 않는다. 또다시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의 단체일 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물랐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왜 미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왜 육지 사람들을 불신하는지!

올해는 4.3사건 70주년이다.

전국에서 4.3기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뒤늦게 4.3의 진실과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표선에 있는 중산간 마을인 우리 고향에는 일년내내 태극기를 집집마다 달고 있다. 특별한 나라 사랑 때문이 아니다. 제주의 중산간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6.25전쟁이 나자 제주 청년들은 자원해서 입대했다. 빨갱이 집안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 . 중산간 마을에는 아직도 성 씨가 다른 두 집안끼리 앙금이 남아있다. 서로의 집안에 누명을 씌우도록 했던 일 때문에 … . 제주에는 “남이 대동하라”는 말이 있다. 소수의 편에 서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균당문화도 있다. 아는 사람끼리 뭉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는 이주하고 3대가 지나

도 토박이로 인정하지 않는다.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속아서 살아왔고, 강박 속에 살아왔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마을 임원이 되려면 20년도 넘도록 살아야 한다. 제주는 기득권에 잘못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사람들은 당선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준다.

4.3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비문이 정해지지 않았다. 여행을 위해 비행기가 착륙하는 제주 공항 활주로 밑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유골이 남아있다. 4.3때에 파괴된 마을 문화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들이 많다. 파괴되고, 유린된 가정은 그 상처와 아픔을 지금의 어른들은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제주 사람들을 폭도로 몰았다. 4.3사건 60년이 되는 해에 희생자 유족회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였다. 경찰과도 화해했다. 그런데 목회자와 장로 100인이 헌법소원을 냈다.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그 뉴스를 보면서 나이든 노인들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와 실망을 보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적어도 4.3를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통합측 교단은 4.3의 논의는 아직까지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우리 육지 것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제주는 온통 꽃밭이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아기자기한 오름 군락들!

제주는 보물섬이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제주는 회복될 것이다. 선한 육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선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침묵한 채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제주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4.3의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 오래전 이념과 권력의 욕망에 눈멀어 휘둘림 당한 육지 이미 돌아가신 육지 어른들과 그들의 이웃이자 후손인 우리 모두 희생자이기에!

서로 잘못을 조용히 고백하고,

지금에 되어지는 불의와 거짓을 단호히 거절하며 피해자 편에,

가난한 자 편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4.3기억투쟁

"침묵, 강요된 침묵에서 외침, 연대의 외침으로"

“평화” 기행

4월 1일 부활절, 윤상이, 나, 향란 자매님, 선주 자매님은 제주도로 향했다. 기행의 주제는 제주 4.3 이었지만, 제주도에 처음 가는 거라서 기대를 품고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에 도착했을땐 낯선 얼굴들이 많았고 처음이라서 낯선 곳이었지만 마냥 좋았다.



김유진 자매
춘천예수마음교회

제주도 둘째날, 하루를 나눔과 묵상으로 시작하였다. 나눔의 질문의 “오늘 내게 평화는?”이었다. 나는 오늘 내게 평화는 ‘낯선 것’이라 나눴다. 낯선 사람들, 낯선 곳이었지만 그곳엔 평화가 있었다.

우리는 4.3 기념관 두 곳을 방문하였다. 첫번째로 방문한 곳은 북촌 너븐승이 기념관이다. 너븐승이 기념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건 열정적으로 4.3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던 해설사분이다. 기념관에서 제주 4.3을 간추린 영상을 보고 해설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념관을 둘러본 뒤,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로 갔다.

두번째로 방문한 기념관은 4.3 평화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에는 수학여행 온 내 또래 학생들이 많았다. 그 친구들이 웃고 사진 찍을때 나는 웃지 못했다. 4.3 평화기념관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았다. 평화 기념관에 들어가자마자 본 것은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채 눕혀져 있던 비석이다. 제주 4.3은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처럼 명확한 이름이 아직 없기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새기지 못한 것이라 했다. 우리를 빙

둘러싼 수많은 이름들, 다양한 연령대가 새겨진 비석들을 봤을때 숨이 턱 막 혔다. 아기를 안은채 숨을 거둔 엄마의 동상도 잊지 못할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지슬”이라는 영화를 봤다. 역사를 다른 다른 영화들을 보면 과장도 있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면, 지슬은 오늘 내가 영상과 사진을 찍었듯이, 누군가가 기록을 남긴 것 같았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제주 둘째날을 마쳤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다은이와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다. 해 뜨는 풍경과 벚꽃나무들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낯선곳에서의 평화로 하루를 맞았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기념관이 아닌 그 당시의 흔적과 사람들이 살았던/학살되었던 마을, 그리고 영화 지슬의 바탕인 큰넓궤 – 동굴에 갔다. 눈으로 직접보고 몸으로 느끼니 믿기기도 했지만 믿기지 않았다. 동굴에 간다 들었을때부터 나는 긴장을 하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동굴에 가는 날이다. 동굴에 갈 생각을 하니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기전 다녀온 동광마을: 이제는 집과 사람이 아닌 풀로 가득한 마을을 다녀와서 일수도 있다.

동굴은 입구부터 좁았다. 그 다음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절벽이 나왔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조마조마한데 사다리도 없던 그 때, 어떻게 이 곳에 들어왔을지 상상이 안됐다. 계속 동굴을 들어가다 보니 기어서 가야하는 길이 이어졌다. 안전모를 쓴 내 머리는 벽에 박기를 반복했고 무릎이 아팠다. 동굴 끝에 다다랐을때 손전등을 잠시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뾰족해서 앉을 곳을 찾기 조차 힘들었다. 들고 있던 불들을 전부 껐을때 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다. 난 눈이 어둠에 적응할까 하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내 손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가는지 알 길이 없는 이 곳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모, 튼튼한



옷과 신발, 어둠을 밝히는 빛 없이 어떻게 있었을까?

나에게 꽤나 충격을 준 영화 지슬이 미화됐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산책을 했다.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으나, 보고 들은것들이 너무 슬프기에 설명할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흘렀다. 기행에 함께한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밤바다를 보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람들과 풍경에서의 평화와, 처음 느껴본 감정과 함께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평화기행의 마지막 날! 새벽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해로 가기위해 허겁지겁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에서 나오자 마자 다시 제주도로 가고싶었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 날씨가 제법 쌀쌀 했다. 비가 점점 더 내리기 시작해서 행진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우리는 우비를 입고 사람들이 벚꽃구경 오는 곳에서 카메라와 셀카봉 대신 제주4.3 을 알리는 피켓, 현수막, 그리고 동백꽃 뱃지를 들었다(물론 행진을 시작하기전에 같이 사진을 찍었다). 행진을 시작 하기에 앞서, 진해는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들었다. 촛불집회 처럼 큰 집회 말고는 작은 행사에 참여해 본적이 없어서 겁을 좀 먹었다. 피켓을 들고 서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을 관찰했다. 대부분 ‘어 저게 뭐지?’ 하는 눈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백꽃 뱃지를 받아갔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고 제주 4.3을 알리고 평화를 외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제주 4.3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다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역사사실과 배경에 불과했다. 이번 평화기행을 통해 4.3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상상하기 불가능한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조심스럽게 공감 할수 있었다. 또한 더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되었다. 7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70년이라는 시간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위해, 그리고 평화의 길을 걷기위해 “기억”해야한다. 평화의 첫걸음은 기억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참여한 평화기행, 처음 간 제주도, 처음 해본 생각들과 느껴본 감정을 통해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나는 낯선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4.3기억투쟁

제주 4.3은 기억투쟁, 기억을 잊으면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현기영 작가-

다시 보기, 거꾸로 보기, 뒤틀어 보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활기 없는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고,
마른 뿌리로 작은 생명을 길러 주었다.



문 선 주 자매
KAC 총무

시인 엘리어트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4월의 생명력 돋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혹한 명명이다. 하지만 4월은 겨울의 긴 침묵을 깨고 생명을 노래하는 계절이기에 겨울의 날카로운 시기와 질투가 필연인가 보다.

우리나라 역사도 4월은 아프다.

4.3 / 4.16 / 4.19

억압받던 민초들이 봄의 기운을 덧입고 생명의 움을 틀려고 할 때마다 공권력의 칼날들이 휘갈기던 잔인한 기억을 품었던 계절이다.

유난히도 빛 좋고 공기가 맑았던 4월 초입에 메노나이트 평화의 후세대들과 함께 제주 4.3을 기억하는 평화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관광지로만 알고 있던 제주의 수려함 뒤에 슬프고 잔인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었다. 죽음의 이유를 묻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억울함 속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비경과 절경으로 외치는 역설이 있었다.

제주 4.3 평화여행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견고한 확신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 주는 시간이기도 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에, 의심과 회의를 통한 다시 보기, 거꾸로 보기, 뒤틀어 보기의 중요성을 느낀 시간이었다. 사실 평화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할 때 시작되는 일이었다.

제주 4.3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된 적이 없으며, 언론은 이 사실에 대해 함구해 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침묵보다 더 슬픈 사실은 기독교가 이 제주 4.3의 비극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부지불식 간에 눈멀고, 귀 막히고, 손과 발이 묶이는 경험을 한 것이다. 권력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조작하고 재편성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국가권력이 전달해 주는 역사의식을 고스란히 전수받으면서 성장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의 앵글만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애국적 목사님의 안목을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

그 결과, 역사가 은폐와 기만으로 왜곡되는 현실에 동조자로 살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제주 4.3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한 순응주의가 빚어 낸 역사가 된 것이다. 이제 깨닫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는 그 변화에 대한 요청에 다시 보기, 거꾸로 보기, 뒤틀어 보기라는 말로 답하고 싶다.

첫째, 다시 보기이다.

다시 보기는 일반적으로 가진 기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쉽게 보이지 않는 이면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관광지이다. 한 때는,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던 환상의 섬이었고 지금은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다. 계절마다 천연 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있고, 사시사철 푸른색을 머금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보

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이 알려 준 것에만 눈이 멀어 제주의 단편만을 보았다. 이제는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다시 보기는 마음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마음을 열어 찾아가 보고, 들어 보고, 함께 할 때, 새로운 시각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번 제주 4.3 기행을 통해 우리는 제주 관광지가 아닌, 폭력과 학살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다. 그러자, 관광지 제주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일제 치하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었던 제주의 아픔이 보였다. 4.3을 통해 3만 여명의 무고한 피를 흘린 잔혹한 현장의 아우성이 들렸다.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화 함으로 여전히 강대국의 전쟁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속박이 느껴졌다. 이렇게 제주를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한다면 제주의 상흔과 여행객의 들뜬 수다 대신, 제주도민의 말하지 않았던 비극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게 된다. 나에게 있어 제주는 이제 예전의 제주가 아니었다!

둘째, 거꾸로 보기이다.

거꾸로 보는 일은 불안정하고 힘이 드는 일이다.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보기�푸 필요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국가다. 제주 4.3 평화기행을 통해서 국가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국가에 대한 맹세를 약속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수없이 다짐했던 시대를 살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애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절대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이어야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은 당연히 영웅이 되었고, 어떤 종류의 희생이든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누구에게나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강요할 수 있는 덕목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순진무구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정책으로 변환시키는 일을 했는가? 돌아보건대, 국민들의 애국심은 짜사랑에 불과했고 국가는 질서와 안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애국심에 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활용했다. 4.19 사태를 겪은 박정희 정권이 보여준 인혁당사건의 조작은 민주주의의 염원을 담은 지식인들의 순수성을 간첩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악랄함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사건이나 부립사건, 5.18 사건이 보여주듯이 국가는 언제나 국민들의 순수한 열정이 자신들의 생각과 반하고 장애요소가 된다고 느끼면 가차 없이 처단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진영논리로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일에 색깔론은 국가의 권리와 힘을 더 없이 공고하게 세워나가는 전략과 전술로 안성맞춤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갈래갈래 찢겨진 갈등의 깊은 상처를 안은 나라가 되었고 그 중심에 제주도가 있었다.

제주 4.3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가 저지른 죄악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붉은색을 칠하며 이 땅 한반도에서 없어져도 되고, 없어져야 마땅할 존재들이라고 명명하면서 대학살의 마수를 뻗쳤다. 제주 4.3은 아직도 이름을 뒤에 무엇이라고 붙여야 할지 명명되지 않은 사건이다. 제주 4.3 항쟁인지, 제주 4.3 만행인지 제주 4.3 봉기인지 ….

왜냐하면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이런 불행의 단초가 국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군정 하에 있던 이승만 정권의 명령과 미국 군정의 묵인하에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은 이웃끼리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었다. 국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정서이기에 이 비난의 화살을 누구에게 향하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가를 향해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STOP”이라고 외치며 국가를 기존과 반대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꾸로 보

기’의 담대함을 장착해야 한다. 국가를 향해 일방적인 짹사랑을 했던 국민들은 불합리한 슬픔과 토해낼 수조차 없는 억울함에 갇혀 산 세월이 벌써 70년인 것이다. 이 제주 4.3은 국가에 대한 맹신을 거꾸로 보게 하는 새로운 안목을 준다. 적어도 국가주의의 맹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500여 년 전 신앙과 국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던 메노 사이먼스의 결단이 오늘 날 우리 한국 교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질서와 안녕에 충성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한다.

셋째는 뒤틀어 보기이다.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우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관점이라 생각한다. 항상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왜곡되었으며, 자신은 올곧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틀릴 수 있다”라는 자기반성은 겸손하게 자신의 왜곡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국가 다음으로 제주 4.3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 교회이다. 교회는 교회의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한 지지를 보냈고, 공산당을 혐오하며, 반공주의에 헌신했다. 그리고 신앙심은 애국심으로 표현된다는 확신으로 제주 4.3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서북 청년단은 국가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제주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질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태연자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빌미로 저지를 수 있는가를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무서운 전쟁이나 학살이 함께 발생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르완다에서 인종 학살이 일어났던 시기에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였으며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매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대량 학살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하던 70~80년대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개인의 영혼구원과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선포했지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변혁시키고자 투쟁하지 않았다. 불의한 사회 현실의 변혁과 무관한 내적 위안과 개인의 번영과 내세의 구원만을 약속하는 현실도피적 복음은 값싼 복음 또는 거짓된 복음이다. “(장신대 윤 철호 목사님의 글에서 발췌)

기독교가 “항상 선이고 교회는 항상 옳은 일을 한다”라는 무한 긍정이나 맹신은 유대민족이 선민사상을 독으로 만들어 버린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다. 기독교도 정권과 영합하고 힘을 얻어 기득권이 될 때, 그 힘을 유지하고 팽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폭력적이 되듯이, 교회의 기득권도 폭력적이고 악마적이 될 수 있다. 이 지독하게 명백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틀어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뜰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확정되기보다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낼 때 가능한 일이다.

약자와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를 가진 교회이다. 더 이상 성공과 부흥에 충동질되고, 공허한 건물과 파이프 오르간과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공감한다. 교회도 얼마든지 악마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진정성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주며 겸손히 기독교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제주4.3은 평화의 부재가 발발시킨 사건이며 평화에 대한 거부가 침묵시킨 사건이며 평화에 대한 오해가 치유를 막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평화는 부주의한 이기적 욕망에서 쉽게 깨진다. 깨어 있지 못하고 기존에 누리던 달콤한 권리에 취할 때, 주변의 아픔과 상처는 나와는 무관한 비현실적 뉴스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깨어 있지 못한 시민의식은 평화를 깨뜨린다. 그리고 이기심에 초점을 맞춘 성공과 부흥. 바로 교회가 힘주어 말하던 복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린다. 세상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먹이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화를 깨뜨린다.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된다.

평화는 다시 보는 것이며, 거꾸로 보는 것이며, 뒤틀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편 가르기를 멈추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과 연대하며, 듣지 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다.

KAC총무로서…

KAC총무로서 평화를 알리고 평화가 삶이 되는 신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자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향해 계속 묻는 시간을 갖는다. 제주4.3 평화여행은 그런 나에게 이론이 아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에 대한 도전을 준다. 이론적 지식에 머물렀던 평화가 드디어 가슴에 파고든 것이다.

4.3 기억투쟁

“한 여성의 약혼자를 고문하던 서북청년단 단원이
여성과의 강제 결혼을 대가로 남성을 풀어주었다.”

4.3에 대해 잘 몰랐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에 맞붙어 태극기 집회도 크게 열렸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들이 그 추운 겨울날 청계천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나부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광장의 촛불을 향해 빨갱이XX라고 외쳤다. 난 촛불이었지만 빨갱이 XX는 아니었다. ‘근데 왜 나보고 빨갱이 XX라고 하는 거야?’



임예은 자매

나는 민주화운동 시절이 지난 후에 태어난 세대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주변에 빨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월북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그나마)자유가 보장되는데 왜 북한을 옹호한단 말인가?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종북이니 좌빨이니 외치며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제주 학살현장을 돌아다니며 들었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내가 먼저 ‘너 빨갱이잖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빨갱이가 되어 바로 살해당하는 시대를,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살아온 것이다. 빨갱이라는 두려운 이념을 보통 사람들에게 주입했고, 이 두려움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조종한 소수의 권력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 .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믿기 힘들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교과서나 뉴스에서 접하는 근현대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색깔

이데올로기로 편가르기를 하며 나를 보호하고 남을 해친다. 만약,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것을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알았다면 … .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빨갱이로 몰 수 있었을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수많은 광주 사람들이 무장군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때 광주 사람들은 보수 표를 찍어줬다. 왜? 무식해서 … . 밥 사주면서 표 찍어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다. 누구의 손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죽게 되었는지 바로 알았다면, 식사대접 한 번에 … , 뇌물에 … , 훌딱 넘어갈 수 있었을까?

청계천에서 태극기 휘날리시는 어르신들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오늘도 시위를 하신다. 역사는 현재의 교훈이고 미래를 준비할 지혜를 선물한다. 이 피흘리고 고통받았던 뼈아픈 대한민국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18년에 무슨 종북이니 좌빨이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라고 치부하고 무심히 살아간다면, 난 또 권력에 조종당하게 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 .

과거에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았다. 오늘날에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모른척 넘어가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일이다. 나는 이 일에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가? 침묵도 죄다. 침묵하게 만들려고 지난 정권 10년 동안 4.3사건을 비롯한 많은 과거사 희생들을 묵인해왔다. 나도 4.3에 대해 잘 몰랐다. 지금도 자세히 모른다. 그래서 죄송하다. 무식했다. 그래서 희생당하신 그분들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없었던 사람 취급했다. 이제는 역사를 바로 알고,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 알아야겠다. 그것이 그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똑똑하자. 무식하게 당하지 말자. 그리고 …

다같이 함께 평화롭게 살자!

그 날 ...

사라지네, 사라지네
독립을 갈망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네

죽어가네, 죽어가네
빨갱이란 이름 아래
죄 없는 그들이 죽어가네

묵인하네, 묵인하네
할 말 많아 목이 메어와도
그들은 묵인하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그들의 한이 풀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네



김 도 현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70년 동안의 고독

70년 전 4월 3일 …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날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만 했고, 도망다녀야 했다. 가족, 친구가 죽는 걸 눈으로 봐야 했고, 죽은 시신마저 자유롭게 가져가지 못했다. 내가 살던 집이 불타는 것을 울며 볼 수밖에 없었고, 축축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추운 동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유롭게 울지 못했고, 총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슬픈 과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맘졸이며 살고 있다.



배종열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듣고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평화를 공부하고 소리쳐야 한다.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고, 희생자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야겠다.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

4월 1일(주일)

춘천, 진해, 논산 지역에서 출발한 팀들이 저녁 6시가 넘어 하나, 둘씩 제주에 도착했다.

비행기 수화물을 찾는 트랙에서 차례차례 쏟아져 나오는 짐들을 낚시(?) 하듯이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다른 시간에 도착한 우리들은 김성우 형제님과 박미영 자매님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숙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김영범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Youth 멤버 7명, 장년 5명

서로 다른 나이 대, 배경의 우리들은 약간의 어색함을 앞에 두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장소는 배용하 형제의 친척집으로 우리 팀이 3일을 보내기 전 적합한 바다와 한라산이 한 눈에 보이는 바람꽃펜션이었다.

제주의 바다를 가져온 듯한 풍성한 음식을 조금씩 비워가면서, 우리는 그



렇게 “식구”가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작은 세상”과 “We shall overcome”를 함께 부르고 김성우 형제님의 인도로 각자 소개와 이번 여행에 기대하는 바를 나누었다.

대부분 youth 멤버들의 기대하는 바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부모님의 강한(?) 권면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의 조금은 작은 기대감은 김성우 형제님을 통해 전달된 일정과 필요한 생활 규칙들을 버티기에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조금의 염려와 내일을 기대하며 첫 날을 마무리지었다.



4월 2일 (월)

국내든 해외든 타지에 가면 일정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는 습관을 따라 산책했다.

제주에 잠시 살았던 내게도 낯선, 새로운 지역의 풍경이었다.

문선주 자매님의 인도로 아침모임을 가졌다.

마가복음 1:16~20절을 읽었다.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것을 버렸다.

함께 기도했다. 1) 남측 북한 예술공연 ‘봄이 온다’를 위해서 2) 오늘 일정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알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경 읽기 전, ‘내게 평화는... 이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다.

‘내게 평화는... 이다”

회복이다.

수면이다.

여행이다.

기대하지 않는 풍경이다.

밤이다.

낯선것이다.

기대감이다.

한개이다.

웰빙이다.

밥이다.(밥먹을 땐 싸우지 않는다)

신선하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제주43 기행의 본격적인 첫 장소인 북촌의 너븐승이 기념관으로 향했다. (너븐승이는 ‘넓은 쉼터’라는 뜻)

당시 제주인구 30만 중 3만이 학살된(알려진 것 만) 제주 4.3은 거의 학살터가 한라산 중턱, 흔히 ‘중산간’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당시 무장대가 그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 북촌 너븐승이 기념관은 해안가 지역에서 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더욱 두드러져 있다. 애기돌무덤부터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까지, 토벌대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무력한 그들이었다.

도대체 이 곳은 토벌 지역도 아닌 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1954년 1월 초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 주둔한 중대 병력 일부가 함덕으로 가던 중 마을 어귀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숨졌다. 군인들은 동료 전사자의 시신(屍身)을 거리에 버려두고 본부로 돌아갔다.

마을 연장자 여덟명이 시신을 수습하여 함덕리 대대본부로 찾아갔는데, 대대장이 없는 사이 하급 장교들은 시신을 들고 온 노인들을 모두 사살했다. 이후 이들은 가옥 300채를 불태우는 등 초토화시킨 다음, 주민 1천명을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 군인가족과 경찰가족들은 따로 나오게 한후 광란의 총살을 시작했다. 뒤늦게 도착한 상급 지휘관의 명령으로 학살은 중단 되었지만 이미 438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뒤였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 까지 6년여 간의 기간 동안 억울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토벌대와 정권의 반응은 뉘우침과 보상이 아닌 더 강력한 탄압이었다.

정권이 제주도민에게 자행한 제주 4.3에 대한 ‘입막음’의 절정이 바로

1954년 1월 23일, 여기 북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이른바 ‘아이고 사건’이다. 군대에 갔다가 사망한 한 마을 청년의 장례를 제주도식으로 고인의 생전 살았던 곳들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상여 멘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던 참혹한 죽음을 떠올리며 제주4.3 때 억울하게 죽은 그들을 위해 술을 한 잔씩 올리다가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 것이다.

이 일이 경찰에 보고되어 마을 이장이 잡혀가게 되었고, 급기야 마을 이장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는 것이다.

어.이.상.실…

제주4.3에 일본 강점기의 횡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라도 하는 듯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구축한 ‘서우봉 일제 동굴 진지 (서우봉 동굴)’로 향했다. 동굴들을 보면서 그 동굴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을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곳곳에 만져지는 것 같았다.

제주4.3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서 70년 전에도 피었을 아름다운 벚꽃과 유채꽃이 그 때와 지금을 연결해 주는 듯 하여 마음이 애잔하다.

모임 중에 한 형제의 지인 찬스로 가성비 찍는(?) 점심 식사를 하고 중산간의 ‘제주4.3기념관’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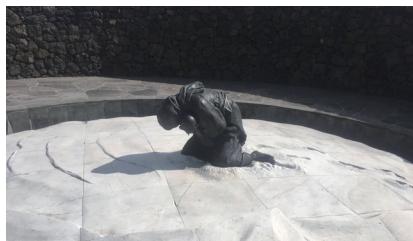
‘제주4.3기념관’은 수학 여행 온 여러 버스와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제주





43기념식에 참여하기에 내일 있을 기념식 준비로 바쁘다. ‘너븐승이 기념관’에 이어 새로운 제주43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우려(?)는 제주 4.3의 피해의 크기를 넘지 못했다. 해설사분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시간이 모자라 보였다.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는 비석, 자녀를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이야기, 꽤 긴 터널을 덮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지금도 뇌리를 맴돈다.



오설록에 들러 입 안의 달콤함으로 피곤함을 잠시 달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 김성우 형제님의 인도로 오늘 하루 보고 느낀 것을 나누었다.

- 제주에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 진짜 있었던 일인지 믿기지 않았다.
-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는 분노와 슬픔이 있었다
- 평화의 첫 걸음은 기억이다

- 평화는 무지이다
- 아거실화나?
- 많이한다고 했지만 슬픔도 공감도 어려웠다
- 죄송하고 감사했다. 아름다운 제주의 슬픈 역사가 마음 아팠다.
- 두 해설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진지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느꼈다. 제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나눔이 끝나고 제주 4.3을 다룬 오멸 감독의 ‘지슬’ 이란 영화를 보았다. 제주 4.3 때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피해 있었던 동굴 중 내일 우리가 방문할 ‘큰넓궤’ 동굴이 배경이 되는 영화였다. 영화를 보는 우리의 진지함은 남달랐다. 다른 때 같으면 동이 났을 팝콘과 탄산 음료가 절반이나 남았다. 이미 영화를 본 나 역시도 오늘 하루의 일정과 제주라는 현장은 영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영화가 끝나고, 모두 말이 없었다.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은 밤이다.

4월 3일(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째 날이다. 제주 평화 기행의 일정의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문선주 자매님의 ‘어떻게 내 삶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세째 날 아침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이다.
- 잊지 않는 것이다.
- 계속 기억하는 것이다.
-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절도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다.
- (폭력이 있는 곳에 침묵과 묵인의 토양에서 일어난다)
- 연민과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가 아니지만) 사과할 수 있는 것이다.
-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 43번지를 달고 주위에 알려야겠다.
- 피해받은 그들의 분노를 (답을 주려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괴물이 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

시편 42편의 본문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떠오르게 했다. 제주4.3의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모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평화는 비평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결과로 무엇인가가 바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

내일 있을 진행에서의 평화 행진이 평화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평화롭게 하소서

부랴부랴 바쁜 아침을 먹고, 오후에 있을 동굴 체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제주4.3의 또 다른 학살터인 ‘섯알오름’으로 출발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안내해주실 송영섭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알뜨르 비행장에 먼저 도착했다. 이곳에서 제주의 아픔을 드러내는 여러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목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혼자 여행하는 한 자매를 만났다. 높은 뜻 푸른 교회에 다니는 임예은 자매였다. 여행 왔다가 마지막 날에 제주4.3에 대해서 알고 싶던 중에 우리를 만난 것이다. ‘오늘 하루 일정에 함께 하겠냐’는 김성우



형제님의 권면에 흔쾌히 동의하여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

대박 신기.

‘섯알오름 학살터’로 이동했다. 이곳은 일본이 패망 후 돌아갈 때에 자기들의 무기를 한 곳에 모아서 폭파한 곳이었다. 그 움푹 들어간 곳에 제주43 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묻은 것이었다.

제주4.3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한국전쟁’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당시 ‘예비검속’ 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 곳 ‘섯알오름 학살터’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와서 무더기로 사람들을 묻어버린 곳이었다. 그 처참함은 이곳을 지칭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

‘백 할아버지에 한 자손’의 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잔혹했으면….

때마침, ‘싸이렌’ 소리와 함께 제주 43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에 동참했다. 남다른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 후, 제주 4.3으로 집터만 남고 사라진 ‘동광마을’을 둘러본 후 우리는 어제 영화 ‘지슬’에서 본 ‘큰넓궤’ 동굴로 향했다. 우리는 헬맷, 장갑, 손전등, 두터운 옷가지, 신발 등으로 무장하고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 주위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팀이었다. ‘출입금지’라는 팻말 뒤로 좁다란 동굴 입구는 다잡은 각오를 무색하게 했다.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안은 축축했고, 어두웠다. 불이 없는 동굴은 상상하기 힘든 암흑이었다. 조금 있다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이 이곳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계속되었다면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갖기 힘들 것 같았다. 동굴 안에는 3개의 큰 공간과 중간에 어디론가 끝을 모르게나 있는 장소가 있었다. 3개의 공간에 5~6개 마을이 나누어 있었단다.

당시 제주 4.3를 겪은 분들이 영화 ‘지슬’을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게 미





화되었다고 말했단다. 동굴 안에 들어오니 조금은 그 분들이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는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있었지만, 직접 들어가 보니 정작 바닥이 울퉁불퉁 현무암의 거친 표면이어서 몸을 의지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군대에서의 포복이 차라리 나아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말이 없었다.

장비를 정리하고 자리를 옮겨 하루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인도로 오설록 잔디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43그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그 당시를 느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있을 때, 보초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상황에 나를 대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올 때의 햇빛이 천사가 있는 듯 했다.

-동굴 전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동굴을 가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무섭고, 춥고, 아프고 그랬다. 나와 비교해서 그들이 입은 옷, 상태들이 너무 어려웠을 것을 생각해 보았다.

-동굴에 어떻게 살았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동굴, 계곡을 좋아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영화 ‘지슬’에서는 잠도 잘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라

는 목사님의 말에, 할머니를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7년 6개월의 4.3의 느낌이 이 동글과 같았을 것 같다. 언제 끝날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육체적인 것보다 심적인 것에 어려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글에서 잠깐 불을 끄고 있을 때 답답함을 공감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것이 공감되었다. 깨어진 평화, 깨어진 일상이 답답하다. 누가 그들의 평화를 깼을까?

-우리가 절대 무식해선 안 된다.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제대로 바로 아는 것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것 같다.

가이드해주셨던 송목사님이 보셨던 EBS 지식 e 채널에 나왔다는 독일의 한 예술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독일의 한 예술가(귄터 템니히 – 나중에 알게 됨)가 억울하게 희생된 600만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념하고자 1997년 독일 쾨른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걸림돌 프로젝트’ 였다.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희생자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지역에 걸림돌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모든 걸림돌에는 이름과 태어난 해 그리고 사망일 혹은 추방일 및 수용소 위치가 기재되었다고 한다. 그 모든 걸림돌에는 이렇게 적었다.

‘그가 여기 살았다’

제주 4.3의 아픈 곳들을 떠올리며, 마음 속으로 떠올려 본다.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

질문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2005년 침례신학대학교 신대원 재학 중, 재세례신학과 역사강좌를 통해서 초대교회 정신을 실천하는 근원적 종교개혁을 추구해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소개로 2005년 12월에 KAC 창립 기념일에 참여하면서 한국에서 재세례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형식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한국 교회의 정서와 달리 모인 수는 늘 기대보다 적었고, 모임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가족모임 같았고, 친구들 만남 같아서 여운이 남았다. 그리고 재세례신앙을 소개하는 책들을 만났다. 제자도, 공동체,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는 삶은 오랫동안 배우고, 고민해왔던 것들의 핵심이었다. 참된 제자의 삶과 온전한 교회공동체를 대학생 때부터 추구해오던 나에게는 확실한 실체를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대원을 마치던 46살에 아내와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을에 사는 주민, 농사짓는 농부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새로운 길, 숨겨진 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탐색이 시작되었다. KAF를 알게 되면서 모임 참석은 매번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서로 존중, 함께하는 교제, 자원해서 섬기는 손길은 모임을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였다.



김 성 우 형제
제주하늘가족교회

나는 늘 모임을 기대하였다. 시간과 교통비가 아깝지 않았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기대되었고, 늘 새로웠다. 모임이 결정되면 항공편부터 예약하는게 습관이 되었다. 늘 소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풍성함과 진지함이 있다.

질문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은, 제자도를 교회를 통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 소수이지만 뜻을 정한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생동감 있는 모험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참된 교회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검증된 삶을 살아온 실재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점은 한국에 재세례신앙의 정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 모델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영향력과 힘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신앙의 형태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혼란스럽고, 두려워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것이 실재적인 현실이다. 생계의 문제와 함께 상호부조하는 생활, 환대와 섬김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라나야 할 영역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공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재는 아주 소수만이 재세례신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나 한 몸과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적 삶,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폭력의 상황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삶은 낯설은 것이고, 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3. 현재 하시는 일 (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 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

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이어야한다. 착한 농부이며, 선한 농부로 사는 것은 축복이며, 특권이며, 사명이다. 그런면에서 농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매우 유익하다.

살리고,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돋고 사는데 농사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된다. 이익추구를 내려 놓기만 하면 농부의 삶은 유익하고, 축복된 삶으로 가득하다.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땀 흘리는 쉼과 안식이 특별하고, 땅과 하늘에 의지해야하니 겸허를 배우게 된다.

식물이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은 신비롭기만하다. 농부로서 유기농 감귤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생태적 환경을 지키고, 정직한 재배와, 판매를 통해 제자의 삶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질문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앙 혹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

무엇보다 신약성경적인 평화교회의 삶이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폭력적 대화, 지역에서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는 일,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상호 책임과 상호부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제시할 수 있다.

권력과 제도, 그리고 맘몬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킴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를 제시할 수 있다. 산 위에 동네처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건강한 상상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한국 안에 이슈가 되는 종교의 편협과 일방적 강요, 빈부격차, 불공정, 비인격적 관계, 노년의 외로움, 청년들의 불안과 두려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러한 것들이 기쁨과 신비를 체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질문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 아나뱁티스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하고, 안정된 교회 내에 첫 사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서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첫 사랑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맥, 유교문화, 실용주의와 능력 중심의 가치에서 떠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 나가기가 매우 쉽다. 교회와 사회현상에 대한 실망감으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갈망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참된 자유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화의 실천을 실재적 상황에서 부딪쳐 나간다는 것이다.

질문 6.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많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평화공동체로서의 모범적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한다. 필요한 사람들과 지역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온전한 연대와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여성,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갈등과 폭력에 대해 화해와 용서를 중재하는 모임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작지만 상호부조와 상호 책임을 지는 실제적이고 충만한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길 바란다.

선한 뜻을 갖고 있는 공동체들과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

다. 평화와 섬김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실험장과 실천장으로서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모험적 도전을 지원하는 기도의 공동체와 환대와 회복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한국 메노나이트교회연합회는 2년 전 새로운 연합을 위한 출발을 하였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신실함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담대하고, 순전한 모험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친히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힘과 용기와 지혜와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20대 중반까지 자란 한인 2세로서, 메노나이트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파라과이에서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고 성실한 독일계 이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박을 피해 그 면 파라과이까지 온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를 시작했고, 현재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민 공동체라고 생각했지, 신앙 공동체인 줄은 몰랐습니다.

파블로 형제
캐나다 토론토

2008년에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 풀러 신학교에 갔고, 당시 ESL 선생님이었던 수 목사님 Sue Park-Hur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 목수님을 통해 개척한 지 3개월 정도 되는 이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자체들을 만나게 되었고 허현 목사님을 통해 메노나이트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신앙 공동체 [가톨릭](#), [장로교](#), [침례교](#), [초교파 교회](#)를 접해 본 저로서는 신학생으로서 제 신앙에 가장 적합한 교단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바로 제자도, 공동체, 평화입니다. 남미에서 만난 여러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 제자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폭력 문화에 사로잡

힌 파라과이 한인 사회를 보면서 저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여정 속에서 추구하게 된 가치가 아나뱁티스트의 핵심 가치와 같음을 발견하고 메노나이트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10년 가까이 북미에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배우고 추구해왔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LA에서는 한인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녔고, 그중 2년은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현재는 토론토 연합 메노나이트 교회Toronto United Mennonite Church의 멤버로 출석하고 있고, 토론토 메노나이트 신학 센터Toronto Mennonite Theological Centre와 아나뱁티스트 교육 센터Anabaptist Learning Workshop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분명 메노나이트가 가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랜 시간 동안 북미 메노나이트 교단에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나는 반쪽짜리 메노나이트Half-Mennonite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주된 이유는 북미 메노나이트 정체성 가운데 유럽계 민족성이 어쩔 수 없이 깊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메노나이트가 신앙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평신도들도 메노나이트는 신앙이지 *faith* 민족 *ethnicity*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요 교단 모임이나 학회에서 “메노나이트 성씨 *last name*”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 이민 온 이야기를 하며 “메노나이트 계임” 혹은 “메노나이트 음식”에 대해 말하는 문화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메노나이트의 정체성 속에는 민족적 색채가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한 메노나이트”라는 개념은 다른 배경을 가진 저에게 배타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메노나이트 학회의 토론 주제와 내용을 보면, 엘리트 백인 남성의 관점이 여전히 메노나이트 신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메노나이트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 여성의 목소리도 백인 중심의 관점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노나이트 학자들이 민족으로서의 메노나이트^{ethnic Mennonite}를 뛰어넘는 신앙적 관점을 소개하고자 큰 노력을 하면서, 『이것이 아나뱁티스트다 The Naked Anabaptist』라는 책도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옷을 벗겨도 *naked* 피부색을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서양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족성을 초월한 “진정한 아나뱁티스트”이며 우리 신학은 중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사와 배경 속에서 저자의 가치관과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자신이 서있는 위치를 설명하는 작업*situating*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파라과이 2세로서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공동체 안에 환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깊은 소속감^{belonging}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메노나이트라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한 식구가 아닌 손님이나 친한 친구로 느껴지는 점이 저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메노나이트 신앙과 신앙 공동체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 한 메노나이트 사람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점은, 겸손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와,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했을 때 느리지만 변화를 향해 가려는 의지와 결단력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작은 교회에서부터 교단까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저는 풀러 신학교, 보스턴 칼리지, 토론토대학교에서 여러 한인 박사 신학생을 만났고 교제해 왔습니다. 그중 다시 한국에 가서 신학 교수로 일하고 싶어 하는 지인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 논문 주제로 고뇌하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비판적 관

점으로 자신의 소속 교회와 교단을 분석하면 본인의 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가르치고 사역하는 기회마저 잃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글을 써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미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어떠한 비판을 해도 공동체와 신학자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기하는 문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북미 메노나이트 형제자매들 속에서 발견한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메노나이트는 건강한 공동체이며, 느리지만 더 좋은 공동체로 변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3. 현재 하시는 일 (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 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기독교 사회 윤리학 박사생인 저의 연구 분야는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북미 메노나이트 공동체에 속한 파라과이 한인 2세로서, 제가 크게 관심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글로벌 교회global church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 및 북미 신학적 관점만이 아닌 다른 대륙에 있는 공동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에 대해 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현재 메노나이트 여성 신학의 관점은 폭력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교회 내에 존재하는 폭력을 다룰 것인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가 민족적 메노나이트ethnic Mennonite와 백인 중심주의를 벗어나 상호 문화적인intercultural community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자유롭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아나뱁티스트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신앙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앙 혹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아나뱁티스트는 수백 년 동안 만인 제사장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 성경 해석 *communal hermeneutic*이라는 실천도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계질서가 강한 가톨릭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평등과 상호 복종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백 년동안 어떻게 신실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치리를 악용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메노나이트 교회는 예전보다 더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만인 제사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성들도 평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 소수자의 목소리도 들으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끈기 있는 만인 제사장의 실천이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 및 북미 메노나이트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이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인 제사장을 실천하기에 앞서 한국 교회와 사회는 다름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 성별, 인종 등의 다름에 서열을 매기고 차별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후에야 만인 제사장은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을 배제하는 인종차별과,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며, 나이 어린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름을 존중하는 법과 함께 건강하고 관계 맺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한국에 계신 모든 아나뱁티스트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만난 분들과 지금까지 해온 한국 아나뱁티스트 사역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aggressive 격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을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존 로스 John Roth 교수님과 대화하다가, 교수님 책이 얼마 전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수님은 깜짝 놀라시며 상당히 “aggressive”하게 빨리 출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번역뿐 아니라 교회 개척과 교단 설립, 다양한 사역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볼 때, aggressive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좋다고 믿으면 그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일을 추진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aggressive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은 aggressive하게 밀고 나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아끼기 때문에 aggressive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세계 아나뱁티스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ggressive하게 살면서 조심해야 할 점은 본인처럼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aggressive하게 사는 것은 좋

은데, 남들도 똑같이 aggressive 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는 순간, 그것은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와 세계 아니라나뱁티스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질문 6. 앞으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꿈꾸는 바가 있다면, 한국 아나뱁티스트 공동체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짧은 외출 동안에도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적어도 열 명 이상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와 같이 다니는 지인들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도를 갖고 보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못한 인종 차별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나뱁티스트 공동체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문화적 공동체^{intercultural community}로 살아간다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는 정부(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아나뱁티스트의 정부관과 자끄 엘륄의 연구 비교

1. 구약 2. 예수 3. 요한계시록 4. 서신서

이 연재는 자끄 엘륄과 아나뱁티스트의 국가관을 비교한 것으로 주 텍스트는 자끄 엘륄의 저서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2장을 인용 발췌한 것입니다.

〈정리 배용하 형제〉

자끄 엘륄은 다른 성서의 책에서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에서도 정치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낸다. 정치권력을 분명하게 짐승으로 표현하며 이 권력이 무너졌을 때 슬피울며 절망할 것은 자본가들이며 정치적 힘을 가진 하나님의 원수들 뿐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에 대한 아나뱁티스트들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많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국가에 대한 분리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왔다. 교회사에서 크리스텐덤에 대한 아나뱁티스트들의 시각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즉 교회사에서 국가와 권력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하려 했고, 그 힘으로 교회를 세상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종교권력이 국기를 이용한 것도 권력의 속성이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다. 반복하지 않아도 될 교훈이 절대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기준은 공동체와 회중의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아나뱁티스트들에게는 그들이 생명을 걸거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찾아서 피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엘륄은 베드로전서 2:14, 17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 ““왕에게 순복하라.”” 고 한 구절은 대체로 “황제(정치권력)에 순복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 황제는 결코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적이 없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그 서신에서 로마의 황제를 겨냥하여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바울도 “위의 권위들에 순복하라.”고 말한다. A. 마이요는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위의 권위들에 순복하십시오.” 결국 그것은 권력 및 권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는 충고였다. 그들은 악을 행하나 너희는 선으로 답하라는 뜻이다.”

엘륄은 자신의 책에서 “베드로전서” 본문이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그것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황제를 칭하며 그를 기리거나 로마의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두 번에 걸쳐 왕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어째서 파르티아의 왕을 겨냥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본문은 완전히 반역적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다른 권력을 지지했던 만큼 그것은 당시 로마의 정치권력만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국가 자체를 겨냥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수동적이거나 복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정치적 태도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정치적 무관심이 아닌,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2)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을 부정하는 태도, 3) 로마 권력을 단죄하는 태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 정부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이 유대 전쟁 중에 대학살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기독교 회를 제거한 주후 70년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대감이 로마로 집중되었음을 자명하다!”고 바울서신의 역사적 해석을 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국가나 권력자들과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나뱁티스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다. 국가와 국가와 손잡은 종교가 그 탄압의 대상이었다. 교회가 역사속에 존재한다면 그 역사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엘륄과 아나뱁티스트는 이 부분에서 급진적이었고 신앙에서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면에서 매우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

BFC 6: 성에 관한 문제를 분별할 때 필요한 화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

– By Rudy Baergen and Robert J. Suderman, 학습 교재 by Willard Metzger –

연재하는 BFC 시리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 앞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분별의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형제교회가 기울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분별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로버트 수더만 (Robert J. Suderman)

배경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가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조차도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MC Canada가 분별의 과정을 시작한 지도 어언 7년째이다. 이제 우리는 넓게는 ‘성’, 더욱 구체적으로는 ‘동성애 관계’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BFC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과 총회 결정 사항들은 MC Canada 홈페이지 www.mennonitechurch.ca/tiny/1930 에 가면 볼 수 있다. 2014년 총회에서는 BFC 5 (성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BFC 5.1 (BFC 5에 관한 피드백)을 살펴 보았는데 BFC 5.1에 나와있는 피드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이 관찰되었다:

1. 비록 하나의 일치점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모두 다 화합에 대한 깊은 열망과 동성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의

견들을 표현하였다.

2. 성에 관한 결단 1986 & 1987 과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 1995 의 19항에 내포된 성에 관한 전통적 견해들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3. 비록 매우 소수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의견과 대조되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다: a) 성경적으로 성을 해석하는 역사적 관점을 건드리는 것 조차 반대하는 의견과 b) 더욱 적극적으로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멤버와 리더와 정식 부부로서 받아들이자는 의견.

BFC 과정 시작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해 왔다. 우리는 교회들에게 예배와 기도로 분별의 과정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왔다. 비록 BFC 5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의견들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접수되었는데 다들 성경을 근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성령님께서 화합에 대한 깊은 열망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셨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교회로 노회로 총회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성애 관계와 관련하여 신실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도전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2014년 총회에서는 90%의 찬성으로 그 동안의 의견 수렴을 통해 떠오른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통과되었다. 이 질문들을 처리하는 것이 BFC 6에서 해야 할 일이다. 각 교회에서의 분별을 돋기 위한 추가 자료가 또한 요청되었다.

BFC 6에서는 이 세가지 질문을 제시하되 여러분의 토의를 돋기 위한 추가 해설 및 보조 질문들과 함께 제시할 것이며 또한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자료들의 리스트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분별을 위한 질문들

질문 1:

우리의 불일치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화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동성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노회, 총회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이 질문은 화합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권하기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3).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을 강권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불일치를 마주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화합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평안의 줄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다.

바울은 불일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매는 줄을 제시하고 있다: 겸손, 온유, 인내, 선함, 사랑, 용서 (엡4:2-3). 불일치의 상황에서 이루는 그와 같은 화합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엡4:12) 온전히 바로 알고 믿게 하여서(엡4:13) 그 몸이 자라나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 되게 한다(엡4:16).

BFC5.1에 대한 응답들을 보면 화합과 불일치 사이의 이와같은 역동적 관계가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화합에 대한 진실된 열망을 보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안에서의 동성 관계에 대해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평화의 매는 줄로 서로를 묶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구절(그리고 질문1)은 일치에 촛점을 맞추지 않고 화합을 관계의 중심에 놓고 있다.

- a) 동성 관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특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b) 과거에 서로 불일치 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귀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좋은 분별의 사례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 c)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더 큰 비전과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면서도 성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차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d) 교회의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질문 2:

대부분의 응답들에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열망을 보았다.

교회마다 이런 열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교회는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성에 관한 전통적 견해 “사스카ചュ에서 결정된 성에 관한 결단 (1986) 과 메노나이트 신앙 고백에 기록”를 계속해서 포용하는 동시에 동성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자 할 수 있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에서, 당신의 교회는 성에 관한 전통적 입장에 반대하는 편에 서서 동성 관계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는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도록 성령과 성경 공부를 통해 인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

성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이 보내주실 상세한 의견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단내 모든 교회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질문 3:

질문 1과 2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것 들에 기초하여 노회와 총회를 위한 조언이 있는가?

개인, 그룹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의 공부를 돋기 위한 자료들

BFC 팀에서 추천하는 자료들 (3개 카테고리로 분류)

1) 일반적 자료 및 특정 자료 모음:

a) Mennonite Church Canada 자료 센터 (<http://resources.mennonitechurch.ca/Home>)

이곳에는 오랜기간에 걸쳐 모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택된 자료들이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글, 비디오, 학습 자료들이 있다.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mennonitechurch.ca/tiny/2385

성경해석학: www.mennonitechurch.ca/tiny/2345

b) 교육 기관들

i) AMBS에서 추천하는 자료들 www.mennonitechurch.ca/tiny/2414

ii) Loren Johns 박사의 웹 사이트: 메노나이트 교회들 안에서의 성에 관한 토론 자료 모음 Johns 박사는 AMBS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있었던 성에 관한 토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토의들을 유용한 방법으로 추적해 왔다. 그는 특별히 그러한 토론들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성경적 토의를 더욱 심도깊게 이해하기

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http://ljohns.ambs.edu/glbmenu.htm>

c) 성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LGBTQ 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이 웹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위니펙에 있는 벤엘 메노나이트 교회에 속한 필그림 모임에서 추천한 자료들이다. <http://bethelmennonite.ca/temp/wp-content/uploads/2012/08/Suggested-Resources-revised-June-2012.pdf>

d) Mennonite Church USA:

i)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기.” 이것은 6부작 온라인 비디오이며 BFC에서 다루었던 많은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 학습 자료이다. www.mennonitechurch.ca/tiny/2437 에서 온라인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DVD 구입을 원하는 교회는 Shana Peachey Boshart (shanaboshart@centralplainsmc.org)에게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기 바란다.

ii) MC USA에서 추천하는 자료들: http://www.mennoniteusa.org/wp-content/uploads/2014/09/Biblical_TheologicalResources.pdf

2) 논의 중에 있는 주제들과 관련하여 Mennonite Church Canad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들:

a)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되는 그리스도인” MC Canada 2007년 총회를 위해 준비한 MC Canada 산하 믿음과 삶 위원회의 발표내용. 그 당시 일부 교회들이 노회만을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 위원회가 다루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신실한 메노나이트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인가?
- 조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인가?
- 다양성이 언제 그리스도의 화합을 파괴하는가?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어떻게?

www.mennonitechurch.ca/tiny/2429

- b) 동성애와 성경적 해석에 관한 비디오, BFC 팀의 요청에 의해 Loren Johns 박사와 AMBS가 제작

이 비디오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현재 오고 가는 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중인들에 의해 제시된 여러가지 자료들과 이슈들을 매우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37분 분량). Johns 박사는 또한 재세례파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주요한 특징 몇가지를 짚어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Johns 박사는 이러한 토의를 오랜동안 연구해 왔는데 이것은 그 요약본이다.

www.mennonitechurch.ca/tiny/2399

- c) BFC 자료들: 특히 BFC1, BFC4.1, BFC5 자료들이 현재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www.mennonitechurch.ca/tiny/1930

3) BFC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Mennonite Church Canada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과정 전체를 통해 (현재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Mennonite Church Canada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자료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감사하게도 이를 통해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접수되었다. 성경을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자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른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들 또한 Mennonite Church Canada에 속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 a) Mennonite Church Alberta (www.mennonitechurch.ca/tiny/2016)

- b) Mennonite Church British Columbia (www.mennonitechurch.ca/tiny/2015)

- c) MennoMedia : – “Dig In” curriculum 영어 : www.mennonitechurch.ca/tiny/2070 스페인어 : www.mennonitechurch.ca/tiny/2436

- d) Bryan Moyer Suderman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나요…?: 성경 해설가로

마가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Mennonite Church Canada 자료실 웹 사이트에 있다 – www.mennonitechurch.ca/tiny/1963.

“예수님과 함께 읽는 성경”이라는 제목하에 4개의 워크숍도 있다 – Willowgrove, Markham–Stouffville Mennonite Ministerial, Mennonite Church Eastern Canada 와 연합하여 제공 (<http://www.smalltallmusic.com/performances/reading-the-bible-with-jesus/>).

교회에서 이 워크숍을 하기를 원한다면 Bryan Moyer Suderman과 상의하기 바람.

e) Glenn Brubacher and David Augsburger

– ‘Welcome’ 로마서 14:1 ━ 15:7: ‘생각에 관한 실험’ 과 연약 샘플 – www.mennonitechurch.ca/tiny/2430

f) Susanne Guenther Loewen

– “낯선 사람을 환영하기: 캐나다 메노나이트 관점에서 본 동성간의 결혼” – www.mennonitechurch.ca/tiny/2431

각 사람/교회/그룹 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자료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곳에 나열된 이외의 자료들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기 바란다.

〈BFC Task Force; Octob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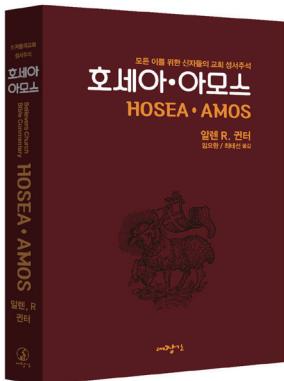
MeToo

“나도 당했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끌내기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소리.

신자들의교회 성서주석 – 호세아/아모스

알렌 R. 커터 지음 | 임요한 최태선 옮김 | 대장간



저자는 복음주의 신자들의 교회 관점으로 주전 8세기의 두 예언자를 연구했다. 그는 그들의 메시지가 지니는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함의를 탐구했으며, 이를 현대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 이 저작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웃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종교와 유다의 신앙을 비교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랑을 드라마로 표현하고 있다.

아모스는 피상적인 경건과 불의에 노출된 베델의 제사장과 맞서기까지 한다.

두 예언자에게 주님의 심판은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

“커터는 수년 동안 연구에 몰두하면서 호세아와 아모스와의 깊은 공감을 전달한다. 그는 명쾌한 문제로 글을 쓰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독자에게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커터는 먼저 큰 단위의 본문과 주요 주제들을 다루어, 더욱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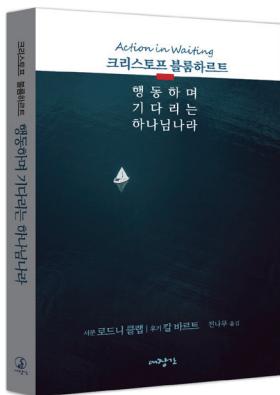
존 E. 하틀리(John E. Hartley) 교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하가드 신학대학원의 성서학부

“커터는 호세아의 풍부한 은유를 부각시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깊은 중요와 심지어 새로워질 언약 관계에 대한 더 깊은 바람이라는 감정의 역동성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행하는 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각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희망으로 마무리한다. 커터는 똑같이 명확하게 아모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예배의 위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불의한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들의 거짓된 신뢰를 밝히는지를 탐구한다. 커터는 오늘날의 동일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개리 V. 스미스(Gary V. Smith) | 교수, 벤엘 신학대학원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나라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블룸하르트 지음 | 전나무 옮김 | 대장간



편안한 기독교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늘날 갈급하게 뭔가를 찾는 이들이 많다. 많은 이들이 교회와 사회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그는 담대함과 열정으로 현대의 거짓 신앙을 불태워버린다. 백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신앙의 핵심에 이르려는 그의 추구 속에서 그는 모든 종교적인 속임수를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열정은 우리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용기를 준다.

블룸하르트의 사상은 본 회퍼나 칼 바르트 같은 신학 거장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 책은 신학서적이 아니다. 이 책은 너무나 친절적이며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다. 그의 하나님나라에 대한 “역동적인 기대”에서 우리는 소망의 대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블룸하르트가 가진 하나님나라에 대한 포괄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신뢰를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가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떨리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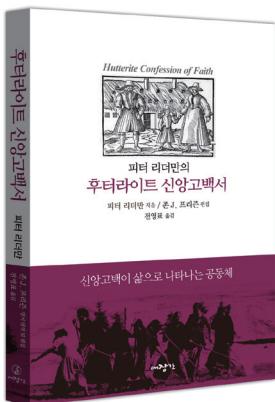
칼 바르트

교회가 세상에 야합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으로 점점 침몰하는 가운데 블룸하르트는 혼들림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수평선 위에 서있다. 그의 삶과 글은 세상에 타협하고 비틀거리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아드레날린이다.

유진 H.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의 저자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서

피터 리더만 지음 | 존 J. 프리즌 편집 | 전영표 옮김 | 대장간



신앙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공동체—후터라이트

후터라이트의 신앙과 가르침과 믿음에 대한 고백

리더만의 신앙고백서는 후터라이트 공동체의 경제적인 공동주의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 신앙고백서는 여전히 후터라이트 공동체들을 이끌고 있다.

리더만은 1540~1542년 동안 갇혀 있을 때에 루터교 통치자인 헤세의 필립을 위해 이 글을 쓴다. 그는 하나님의 개혁된 공동체로서 후터라이트의 목표를 설명하며 대중적인 오해를 불식시킨다. 후터라이트는 이 신앙고백을 바로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리더만은 참신한 성경의 읽기와 고전적인 신조를 창조적으로 엮는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성경과 전통의 강력한 종합을 이루어낸다. 그의 급진적이고 공동체적인 제자도의 역동적인 비전은 여전히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서로에 대한 더 큰 헌신으로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책은 후터라이트에서 일상적인 삶의 하나의 포괄적인 안내서이다.

존 A. 호스테틀러, 『후터라이트 사회』의 저

16세기에 후터라이트에 의해서 출간된 유일한 이 책은 후터라이트의 길을 정의하고 균형 잡힌 성서신학을 제공한다.

레오나르트 그로스, 『후터라이트의 황금기』의 저자

세대를 초월해서 리더만이 매우 오래전 그의 어두운 감옥에서 기록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읽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풀 S. 그로스, 『후터라이트의 길』의 저자

무슬림과 친구되는 열두 가지 방법

데이비드 W. 셩크 지음 | 이창산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무슬림과 관계를

건고하게 세우는 경험들과 교훈들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우정이 가능할까? 종교 갈등이 이처럼 극심한 시대에도, 쟁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과 진정한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열두 가지 방법을 펼쳐놓는다. 이 방법들은 그리스도에 헌신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고 환대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이 책은 소말리아와 케냐와 미국에서 50년간 계속된 저자와 무슬림들의 우정의 열매이다. 이 책은 그가 무슬림 이민들과 나눈 생동감 있는 대화들, 전 세계의 수많은 모스크들을 방문한 이야기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동역하는 목사들과 이민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이미 검증된 이 방법들은 현장 선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일학교의 훈련교재나 무슬림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55년간 무슬림을 이웃하여 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웃으로 살아가는 저자의 삶의 한결 같은 진정성을 만나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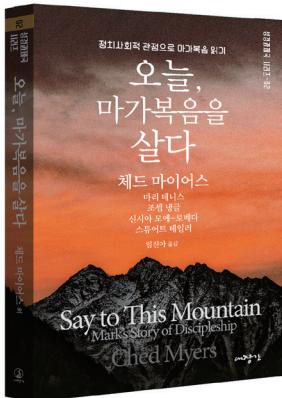
김동문 선교사

지금 우리에게 이 책 보다 더 시의적절한 책은 없을 것이다. ‘평화의 사람’(눅 10:6)을 만나기 위해 중동 지역으로 종종 여행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 나에게 엄청난 감동과 실제적인 도움을 안겨주었다.

린 하이벨스 Lynne Hybels, 월로우크리스천교회 공동설립자

오늘, 마가복음을 살다

체드 마이어스 외 지음 | 임진아 옮김 / 대장간



관객에서 배우로 독자를 초대하는 마가복음 읽기

체드 마이어스는 정의와 평화, 교회 갱신, 기독교 제자도 사역에 혼신한 가톨릭 및 개신교 저자들과 함께 이 책을 작업했다. 체드를 비롯한 저자들은 마가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와 우리 시대의 더 큰 이야기와 만날 때에만 변화의 힘을 가진다고 확신한다.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도록 마가복음 읽기 과정을 디자인했다.

이 책은 수월한 성서 연구를 위해 세심하게 구성되었다. 장마다 있는 “문맥 속 말씀”은 마가복음 각 본문에 담긴 주제를 간략하게 살피고, “세상 속 말씀”은 말씀에서 한 가지 적용점을 뽑아 현대 상황에 맞게 성찰하도록 돋는다. 책 전체에 담긴 묵상과 실천 방안은 성찰적 기도와 그에 걸맞은 행동의 연결을 강조한다.

놀라운 책이다. 이 시대에 맞는 강력하고도 감당하기 벅찬 성서 해석이 담겨 있다.

월터 브루그만(『예언자적 상상력』, 『안식일은 저항이다』, 『예언자적 설교』)의 저자

이 책의 모체격인 *Binding the Strong Man*은 단연코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이후 가장 중요한 성서 주석이다.

월터 윙크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참사람』,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의 저자

한국 기독교 신자의 신앙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책 앞에 겸손히 서고 이 책에 순종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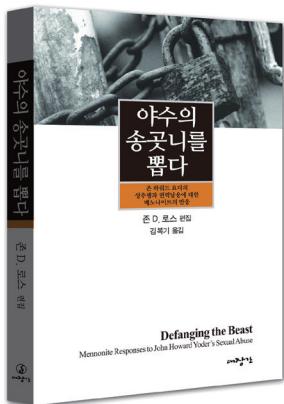
류의근 교수, 신라대학교 철학)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다른복음서들과는 달리 마가복음의 끝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 신앙은 하늘과의 그런 정직한 대면이다. 이 책은 우리를 그런 마가의 복음으로 안내한다.

장윤재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

존 D. 로스 편집 | 김복기 옮김 | 대장간



성추행에 대한 집단의 은폐와 침묵이라는 범죄에 대해

올바른 기억 행동을 실행하기로 선택한

집단지성의 여정과 기록

이 책은 먼저 요더의 성추행 사건의 전말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그의 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과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대처해야 할 방안들과 예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기나긴 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종교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행하는 성폭력이라는 야수의 송곳니를 뽑아내겠다는 용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길 바란다.

성직자들의 성추행 소식이 수시로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곤 한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교회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변화할 생각은 있는가? 교회의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치리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평화신학의 탁월한 학자, 배움의 폭, 신념의 깊이, 언어적 천재성, 심오한 통찰력 … 요더는 종파에 매이지 않고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힘들 만큼 폭넓은 신학적 궤도와 관계성을 가진 천재였다. 20년 간 그와 관계한 수많은 개인, 그가 몸 담았던 다양한 그룹, 다양한 교회와 기관들은 요더의 행동에 대한 비밀보장 유지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정보를 통제했고 피해자들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 상처는 곪아서 피해자 및 생존자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하나밖에 틀리지가 뭐죠?

음 이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이 운동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가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한번 해 볼래? 살도 빠지고 통장에 잔고도 빠지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끈끈한 편이야. 운동을 해도 같이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깐깐해. 안 볼 때는 좀 살살해도 될텐데

요즘 말로 좀 빽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풀풀 뭉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 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보여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맷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나뱁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교회** www.sbrookchurch.org(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http://www.facebook.com/꿈이있는교회) ■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http://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 단체** www.kac.or.kr(KAC) ■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 www.ReconciliAsian.com(리콘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뱁티스트센터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KAF 재정 사용 내역(2017. 12. 21~2018. 5. 30)

이월 246,400

수입 841,640

30,000(강현태), 25,000(남상우), 60,000(황기운), 25,000(배용하),
55,000(김영범), 300,000(예수촌교회), 100,000(대장간), 240(이자)

지출 380,000

380,000(저널 14, 15합본호 인쇄 미지급분)

잔액 461,64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합니다.

재정 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